

2018 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가속 방역체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8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박동규 dgpark@krei.re.kr, 손미연 sonmy@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4
3. 소비	5
4. 물가	7
5. 금융·환율	12
6. 세계경제	15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1
4. 농축산물 수출입	23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9
2. 엽근채소	35
3. 양념채소	40
4. 과일	49
5. 과채	53
6. 축산	61

IV. 음식물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68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69

특별주제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81
가축 방역체계 개선 방안	100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18년 1/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였고, 이는 민간소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건설 및 설비 투자,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판매 등 내구재 중심으로 전기 대비 0.6% 증가함.
-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 3.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2018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2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은 감소세 지속, 건설업은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증가세가 유지됨.
- 2017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함. 승용차 판매 부진은 향후 소매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반등 및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출의 증가세 지속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18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함.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함.
- 2018년 2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4%, 0.5% 증가하고,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 완화 등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함.
- 2018년 1/4분기 원/달러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8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신흥국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리스크가 상존함.

Ⅱ.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2017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6.5% 성장함.
- 2018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 전분기 대비 5.9%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2%, 2.7% 상승하였으나, 과수와 축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8.8%, 13.3% 하락함.
- 2018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지수도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5%, 1.7%, 3.6% 상승함.
- 2018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9.1로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하였고, 전분기 대비 5.2%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8.0%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5.6%, 전분기 대비 3.5% 증가함.
- 2018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함.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6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9%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조사결과,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2011년 이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감소 추세이나, 70%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라는 도시민은 68.2%, 농업인 37.3%로 나타나 농업인의 부정 인식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았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70%가 ‘많다’(70.0%)고 응답하였으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 도시민 5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민은 농촌에 대해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지만,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농촌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 51.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4.1%이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전원생활을 위해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기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도시민은 57.9%, ‘10년 이후’ 23.9%, ‘10년 이내’ 11.8%로 나타나,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도시민은 식품 구매 시 ‘품질’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격’, ‘지리적 원산지’ 등의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매에 대해 도시민들은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입’한다는 의견은 2016년보다 감소하였음.
- 농업인 직업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17.6%였으며, 불만족 이유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60.4%)가 가장 높았음. 또한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를 ‘일손 부족’(16.6%)으로 인식하였음.
- 향후 농촌 거주 계획 여부에 대해 농업인 84.6%가 ‘농촌에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7%, ‘불만이다’가 21.0%로 나타남.

2. 가축 방역체계 개선 방안

- 2017년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에서 A가 발생함. 현재(18.04.24.)까지 22개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약 654만 마리가 살처분됨. 발생 원인은 해외에서 A 감염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사람, 차량, 야생 동물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3월 26일 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A형)이 발생함. 4월 1일 추가 발생 이후 4월 23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음. 발생 원인은 주로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A 방역의 문제점으로 사전예방 측면에서 농장 차단 방역 미흡, 소독제 효능 문제 및 백신 개발 관련 R&D 미흡, 철새 대응 체계의 운영 미숙, 농장 사전 예찰 미흡, 가금산물 유통 과정상 방역의 한계 등이 제기됨. 발생 시 대응 미흡 측면에서는 A 진단 지연에 따른 확산 방지 대책 미흡,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A 위기 단계, A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남. 또한 A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미흡, 방역주체의 책임 의식 부족, 중앙 방역조직의 비효율과 지방 방역 인력의 절대 부족 등도 개선과제로 제기됨.
- 구제역 방역의 문제점으로는 최초 구제역 유입의 차단이 미흡하였고, 농가의 차단 방역과 농가 방역 실태 정기 점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그동안 돼지 구제역 백신은 대부분 O형 위주의 백신을 접종해왔기 때문에 A형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부족하였음.
- A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음.
 - 사전 예방 체계 강화: 농장차단방역기준 마련 및 준수, 소독제 관리 및 R&D 강화, 야생조류 대응 체계 정비, 농장 예찰 및 도축 단계 검사 강화, 가금산물 유통체계 개선
 - 발생 시 대응 강화: A 검사기관 확대 및 질병 신고 기준 강화, A 대응 체계 정비, 사전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 실시
 -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밀집사육지역 재편,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 기준 및 신규 허가 기준 강화, 가축 재입식 기준 강화를 통한 방역 소홀 농장 관리 강화, 가금 사육 휴지기 제 도입
 - 방역 주체의 책임강화: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한 방역 의식 고취, 방역비용 분담을 위한 방역부담금 도입 검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
 -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 중앙 방역 조직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역 기능 및 역할 확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직 개편, 지방 방역 조직 강화
-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농장의 방역 기준을 구체화하고, 점검을 강화해야 함. 또한 구제역 백신 개발, 국제 공조를 통한 항원뱅크 운영으로 구제역 백신의 국내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하여 광공업 생산·소비·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2018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였으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1.8% 증가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p					2018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DP 성장률	0.6	0.6	0.8	0.4	0.7	0.7	1.0	0.6	1.4	-0.2	1.1(2.8)
민간소비	0.4	-0.2	0.8	0.5	0.3	0.8	0.5	1.0	0.8	1.0	0.6(3.4)
정부소비	0.9	1.7	0.6	0.7	0.5	1.1	0.6	1.2	1.9	0.5	2.5(6.1)
건설투자	3.0	5.6	3.2	2.2	1.0	1.0	4.2	0.9	1.1	-2.3	2.8(2.7)
설비투자	0.9	-7.1	2.7	1.6	6.5	2.1	4.5	4.3	0.2	-0.7	5.2(9.2)
총 수출	0.4	-0.2	0.8	1.4	-0.6	-0.1	2.1	-2.7	5.6	-5.3	4.4(1.6)
총 수입	0.9	-1.3	2.3	2.4	0.1	1.1	4.9	-1.0	3.2	-2.9	5.5(4.7)

주 1. 2017^p, 2018^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손미연 연구원(sonmy@krei.re.kr),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dgpark@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18.4.26.)」, 「2018년 경제전망(2018.4.1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8.4.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건설 및 설비 투자,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음.
 -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 판매 등 내구재 중심으로 전기 대비 0.6% 증가함.
 - 2018년 1/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전기 대비 5.2%, 증가함.
 -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류 등이 늘어 전기 대비 4.4% 증가함.
 - 수입은 천연가스,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5.5% 증가함.
-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은 증가로 전환함.
 - 농림어업은 축산물과 수산물 생산이 늘어 전기 대비 6.5% 증가함.
 - 제조업은 기계 및 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1.9% 증가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이 줄었으나 부동산 및 임대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이 늘어 전기 대비 0.9%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구분	2016					2017 ^p					2018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농림어업	-1.1	1.5	-3.2	-1.4	-1.1	0.5	3.9	-0.3	-1.8	0.2	6.5(4.6)
제조업	0.8	0.0	1.3	-0.1	1.8	0.7	1.7	0.1	2.7	-1.7	1.9(3.0)
서비스업	0.5	0.6	0.6	0.4	0.4	0.6	0.4	0.7	1.0	0.3	0.9(3.0)
(도소매 및 음식숙박)	0.4	0.0	0.6	0.3	0.8	0.2	-1.3	0.6	1.2	0.4	-0.9(1.3)
(금융및보험업)	0.7	0.7	0.1	0.7	1.3	0.7	0.7	2.1	0.3	-0.4	2.8(4.8)
(부동산 및 임대)	0.0	0.9	0.0	-0.3	-0.7	0.4	1.9	-0.7	0.6	-0.2	2.7(2.4)
(정보통신)	0.7	1.3	1.2	0.4	-0.2	1.1	0.9	-0.5	2.4	1.5	-1.1(2.2)
(문화및기타서비스)	0.4	0.6	2.6	-1.9	0.3	0.0	-0.7	2.0	0.4	-1.8	4.1(4.5)

주 1. 2017^p 2018^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면,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년 동기 대비 3.0%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금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2019년에는 수출 및 소비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양호한 소비심리의 지속,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등이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함.
 -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세 둔화는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는 금년과 내년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겠으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IT부문은 반도체 투자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비IT부문은 업종별로 투자여건이 차별화된 가운데 석유화학, 통신,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R&D 투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 기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건설투자는 조정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 주거용 건물은 2016년 이후 착공면적 감소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물도 상업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토목은 SOC 예산 감축 기조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상품수출은 세계교역 회복세 지속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며, 서비스수출은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7			2018 ^㉑			2019 ^㉑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2.8	3.3	3.1	3.0	2.9	3.0	2.9
민간소비	2.2	3.0	2.6	3.1	2.3	2.7	2.7
설비투자	17.0	12.3	14.6	5.0	0.9	2.9	2.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7	3.2	3.0	3.3	2.6	2.9	2.7
건설투자	9.7	5.8	7.6	1.6	-1.8	-0.2	-2.0
상품수출	4.5	3.0	3.8	2.8	4.3	3.6	3.6
상품수입	10.0	5.0	7.4	2.9	3.7	3.3	3.2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8.4.12.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수정)」 자료를 참고함.

2. 2018^㉑, 2019^㉑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18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28만 명으로 전기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건설업은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음.
 - 임금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시직 및 일용직은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모두 감소함.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3월 고용동향(2018.4.11.)」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8.4.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7,418 62.9	27,748 63.2	27,262 62.2	27,993 63.8	27,961 63.6	27,775 63.1	27,464 62.3	0.7 0.2
취업자	26,409	26,725	26,100	26,919	26,998	26,883	26,283	0.7
• 농림어업	1,273	1,279	1,003	1,405	1,418	1,288	1,056	5.3
• 광공업 (제조업)	4,603 4,584	4,589 4,566	4,551 4,530	4,601 4,579	4,594 4,570	4,609 4,586	4,597 4,575	1.0 1.0
• 건설업	1,869	1,988	1,908	2,015	1,990	2,038	1,977	3.6
• 도소매·음식숙박업	6,045	6,083	6,098	6,053	6,111	6,070	6,000	-1.6
실업자	1,009	1,023	1,162	1,074	963	892	1,181	1.6
실업률(계절조정)	—	—	3.7	3.5	3.5	3.4	3.7	0.0

자료: 통계청

3. 소비⁴⁾

- 2017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3.4% 증가함.
- 2018년 2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4.1%) 및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중심으로 증가하며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 6.3% 증가함.
- 지속적인 승용차 판매 부진은 향후 소매판매에 부정적인 요인이거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반등 및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8.4.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소비동향

단위: %(전분기 대비)

구분	2016	2017 ^p					2018 ^p	
	연간	연간 ^p	1/4	2/4	3/4	4/4 ^p	1월 ^p	2월 ^p
민 간 소 비	2.5	2.6	0.5	1.0	0.8	1.0	-	-
소 매 판 매	-	-	1.6	1.0	3.2	2.1	1.2	6.3
(내 구 재) ¹	4.6	5.4	1.0	5.2	-3.0	1.4	4.5	0.0
(준내구재) ²	2.3	-1.1	-1.3	-0.5	1.1	1.4	-3.0	4.1
(비내구재) ³	4.2	1.7	0.8	-0.5	1.4	0.5	1.7	0.3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7년^p, 2018년 1월^p, 2월^p은 잠정치임.

5.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며, 소매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 전분기와 전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7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 5천 원으로 전분기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함.
- 이전소득과 재산소득,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9.5%, 8.5%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 증가율은 0.9%로 가장 낮았음.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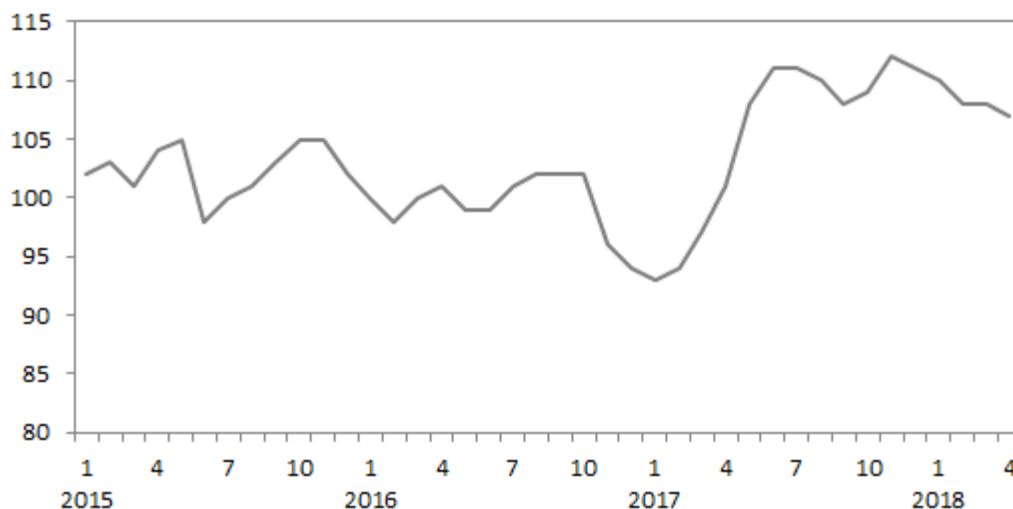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소 득	0.6	0.8	0.8	0.7	0.2	0.8	0.9	2.1	3.1
경상소득	1.1	0.8	1.7	1.4	1.0	0.8	1.1	2.5	3.4
(근로소득)	1.0	0.3	1.9	1.9	0.4	0.0	0.5	1.6	0.9
(사업소득)	1.5	3.3	0.2	1.1	2.2	0.9	4.1	6.2	8.5
(재산소득)	-18.4	-21.0	-9.8	-31.9	-4.4	15.2	12.9	34.4	9.5
(이전소득)	2.1	0.7	3.8	0.4	2.9	5.3	-1.6	1.0	10.1
비경상소득	-14.5	2.3	-21.4	-23.4	-23.9	1.7	-4.0	-18.0	-11.7

자료: 통계청

- 2018년 4월 소비심리지수⁵⁾는 전월(108)과 비슷한 수준인 107로 전년 동월(101) 대비 5.9% 증가함.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물가⁶⁾

- 2018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4.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함.
 -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함.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2018.4.3.)」, 통계청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2018.4.3.)」, 한국은행 「2018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2018.4.19.)」, 「2018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2018.4.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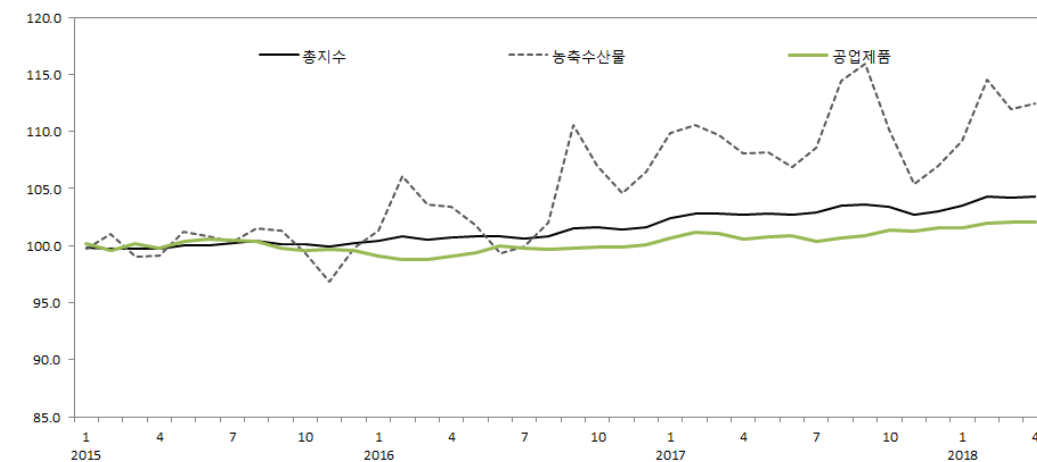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1.0 (1.0)	102.9 (1.9)	102.7 (2.1)	102.7 (1.9)	103.3 (2.3)	103.1 (1.5)	104.0 (1.3)
상 품	99.4 (-0.6)	101.3 (1.9)	101.4 (2.0)	100.9 (1.8)	101.8 (2.9)	101.2 (1.0)	102.2 (0.8)
농축수산물	103.8 (3.8)	109.5 (5.5)	110.0 (6.1)	107.7 (6.1)	112.9 (8.4)	107.5 (1.4)	111.9 (1.7)
공업 제품	99.5 (-0.5)	100.9 (1.4)	101.0 (2.1)	100.8 (1.3)	100.6 (0.9)	101.4 (1.5)	101.9 (0.9)
전기·수도·가스	90.8 (-9.2)	89.5 (-1.4)	89.1 (-6.9)	90.3 (-2.4)	90.4 (8.0)	88.4 (-3.3)	87.5 (-1.8)
서 비 스	102.3 (2.3)	104.3 (2.0)	103.7 (2.1)	104.2 (2.0)	104.6 (1.9)	104.6 (1.9)	105.4 (1.6)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8년 1/4분기 상품과 서비스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 1.6% 상승함.
 - 2018년 3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채소류 가격 안정 및 축산물 가격 하락세로 인해 상승폭이 완화됨.
 - 석유류는 국제유가가 보험세를 나타낸 가운데 환율 절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전기·수도·가스는 작년 3월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폭이 확대됨.
- 2018년 3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통신, 음식·숙박은 변동이 없으며, 식료품·비주류음료, 오락·문화, 교통, 주류·담배는 하락하였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주택·수도·전기·연료, 교육, 의류·신발, 보건, 기타상품·서비스는 상승하였음.
 - 전년 동월 대비로는 음식·숙박 등 12개 부문 모두 상승함.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18년 1/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1.9로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4.1% 상승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하였고, 농산물 품목별로는 곡물, 과일, 기타농산물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3.5%, 25.9% 상승하였으며, 채소는 3.2%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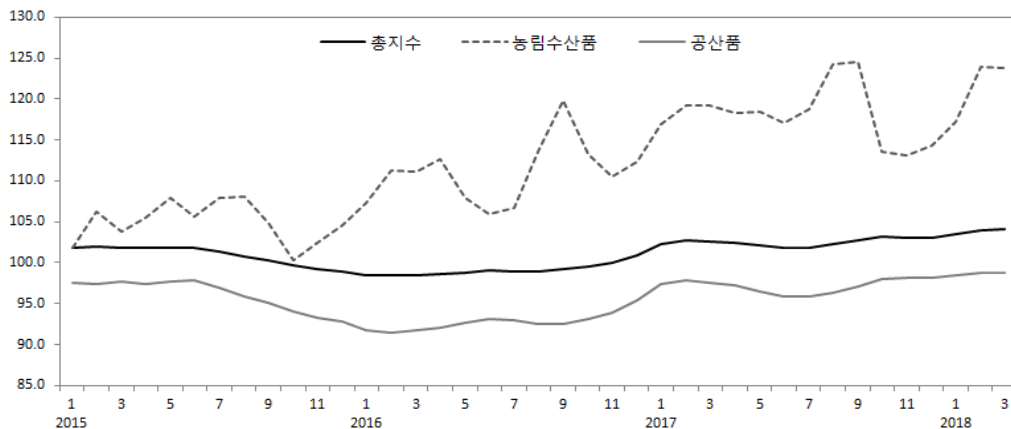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7					2018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9.5	110.0	107.7	112.9	107.5	111.9	1.7	4.1
농산물	108.5	110.6	104.1	113.7	105.7	115.0	4.0	8.8
곡물	88.7	86.3	85.4	87.2	95.9	100.5	16.4	4.8
채소	115.8	126.4	102.1	127.5	107.1	122.4	-3.2	14.3
과일	112.7	109.8	116.8	116.9	107.5	113.6	3.5	5.7
기타농산물	103.2	100.2	96.7	99.0	117.0	126.1	25.9	7.8
축산물	111.2	109.9	112.8	113.8	108.3	105.3	-4.2	-2.8
수산물	109.8	108.3	110.4	108.3	112.3	114.2	5.4	1.7

자료: 통계청

- 2018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3.9로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함.
 - 2018년 3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1% 하락함.
 - 공산품은 제1차금속제품 등이 올랐으나 전기및전자기기 등이 내려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임.
 -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8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4.5로 전분기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함.
- 2018년 3월 수출물가지수는 84.3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9%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함.
- 2018년 1/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3.3로 전기 대비 5.5%,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함. 3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4.4으로 전월 대비 1.6%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함.

- 2018년 1/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4.4로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함.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9%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80.8 (-3.3)	85.7 (6.1)	86.2 (5.8)	84.8 (6.2)	86.0 (10.0)	85.9 (2.8)	84.5 (-1.9)	85.0 (-1.3)	84.3 (-0.9)
농림수산물	101.9 (11.3)	109.5 (7.4)	104.8 (6.1)	109.6 (7.5)	114.3 (11.4)	109.3 (4.7)	103.3 (-1.4)	102.8 (-1.4)	104.4 (-0.2)
농 산 물	145.6 (-0.1)	143.4 (-1.6)	139.8 (-4.0)	149.7 (4.4)	151.0 (-1.2)	132.9 (-5.5)	130.8 (-6.4)	131.7 (-3.4)	135.0 (-4.2)
공 산 품	80.7 (-3.4)	85.6 (6.1)	86.1 (5.8)	84.7 (6.2)	85.8 (10.0)	85.8 (2.7)	84.4 (-2.0)	84.9 (-1.3)	84.2 (-0.9)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월과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8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3.5로 전년 동기 대비 0.3%, 전분기 대비 0.8% 상승함.
- 2018년 3월 수입물가지수는 83.9로 국제유가가 보험세를 보였으나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7.6% 상승함.
 - 2018년 3월 기준 원재료의 경우 전기및전자기기, 일반기계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3% 상승하였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3%, 0.6% 하락함.
- 2018년 3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1.2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5.4% 하락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77.0 (-4.2)	82.0 (6.5)	83.2 (9.7)	80.6 (5.0)	81.3 (8.4)	82.8 (3.2)	83.5 (0.3)	83.6 (0.4)	83.9 (3.1)
농림수산물	93.8 (-0.4)	94.0 (0.2)	97.9 (5.1)	93.7 (0.4)	92.9 (1.0)	91.3 (-5.4)	90.7 (-7.4)	91.6 (-5.7)	91.2 (-5.4)
농 산 물	82.2 (-3.3)	82.9 (0.8)	86.8 (5.2)	81.6 (-0.7)	82.5 (2.9)	80.5 (-4.0)	80.8 (-6.9)	81.5 (-5.9)	81.9 (-3.7)
축 산 물	115.7 (0.7)	113.7 (-1.8)	117.1 (3.4)	114.6 (0.7)	112.1 (-2.5)	110.9 (-8.3)	109.3 (-6.7)	110.9 (-3.7)	108.4 (-6.3)
공 산 품	83.1 (-0.8)	84.6 (1.7)	85.8 (2.2)	83.2 (-0.2)	84.4 (4.1)	84.9 (0.9)	84.5 (-1.6)	84.6 (-1.1)	85.3 (1.1)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월과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18년 2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함.
- 2018년 2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5%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시입출식 정기예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기타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8년 2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7% 증가)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8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8.4.11.)」와 「2018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2018.4.11.)」, 「2018년 1/4분기중 외환시장 동향(2018.4.18.)」, 「2018년 2월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18.3.8.)」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7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1 ¹	11.7	9.7	10.6	9.9	9.5	9.3	9.5	9.1	7.9	9.8	7.2	6.9	6.3	8.1
M2 ²	6.9	5.9	6.2	6.6	6.1	5.9	5.1	4.6	4.6	4.7	4.8	4.7	5.5	6.2
M ³	8.0	7.4	7.3	7.4	7.1	6.7	6.5	6.2	5.9	5.9	5.8	6.1	6.4	6.8
본원통화 ⁴	12.3	11.3	9.1	10.8	9.9	10.9	10.3	9.4	8.8	12.9	9.8	10.6	6.7	9.2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저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8년 3월 국고채(3년)금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 완화 등으로 하락함.
 - 회사채(3년)금리는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국고채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 단기시장금리는 분기말 MMF 수신 감소 등으로 소폭 상승함.
 - 코스피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주로 대외적인 요인의 전개양상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을 보임.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17										2018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국고채(3년)	1.71	1.68	1.69	1.67	1.74	1.78	1.79	2.03	2.15	2.10	2.19	2.28	2.27
회사채 ¹	2.21	2.20	2.22	2.21	2.28	2.32	2.33	2.57	2.71	2.65	2.72	2.82	2.83
CD유통수익률(91일)	1.48	1.43	1.39	1.38	1.39	1.39	1.38	1.38	1.45	1.66	1.66	1.65	1.65
콜금리 ²	1.23	1.23	1.23	1.24	1.24	1.23	1.25	1.25	1.26	1.51	1.49	1.49	1.49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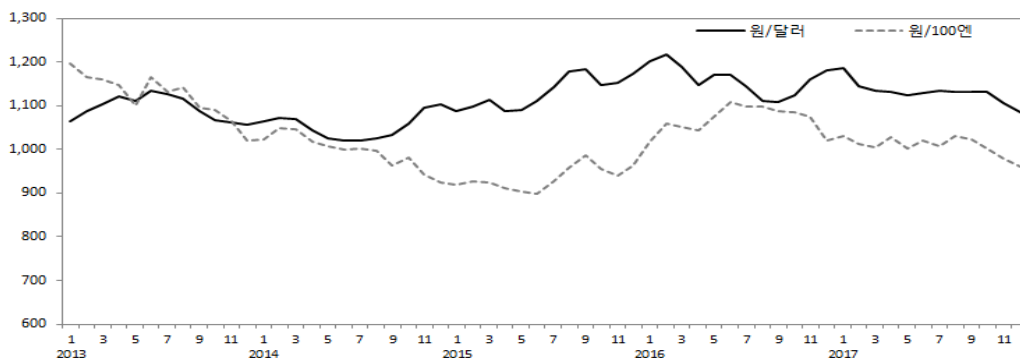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원/달러 환율(평균)은 전분기 대비 33원 하락한 1,072원임.
 -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투자심리와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분기말 대비 소폭 하락함.
- 2018년 1/4분기 원/위안 환율(평균)은 169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10원 상승한 989원임.
 - － 원/엔 환율(100엔당)은 엔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엇갈리며 상승함.
- 2018년 1/4분기중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의 기간중 표준편차는 환율이 좁은 범위내에서 등락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축소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31	1,161	1,154	1,129	1,132	1,106	1,072	1,067	961	1,300	166
원/100엔	935	1,068	1,015	1,017	1,020	979	989	1,080	998	1,332	171
원/유로	1,255	1,283	1,230	1,243	1,330	1,302	1,317	1,072	1,011	1,323	170
원/위안	180	174	168	165	170	167	169	1,068	994	1,312	170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세계 경제는 선진국·신흥국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리스크가 상존함.
- 미국 경제는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2017년 4/4분기 2.9%(전기 대비 연율, 확정치) 성장하는 등 내수중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전반에 대한 심리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1.5	2.3	1.2	3.1	3.2	2.9	-	-
	산업생산(전기비)	-1.9	1.6	0.2	1.2	-0.4	1.9	-0.2	1.0
	소매판매(전기비)	2.9	4.6	1.4	0.3	1.1	2.5	-0.1	-0.1
	실업률(계절조정)	4.9	4.4	4.7	4.4	4.3	4.1	4.1	4.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3	2.1	2.6	1.9	2.0	2.1	2.1	2.2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7	6.9	6.9	6.9	6.8	6.8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2	6.6	6.6	6.9	6.3	6.2	-	7.2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4	10.4	10.9	10.8	10.3	9.9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0	1.6	1.4	1.4	1.6	1.8	1.5	2.9
일본	실질GDP(전기비)	0.9	1.7	0.5	0.6	0.6	0.4	-	-
	산업생산(전기비)	-0.2	4.7	0.2	2.1	0.4	1.8	-6.8	4.1
	소매판매(전기비)	-0.6	1.9	-0.2	0.6	0.1	1.3	-1.6	0.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0.5	0.3	0.4	0.6	0.6	1.4	1.5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1.9	2.5	0.6	0.7	0.7	0.6	-	-
	산업생산(전기비)	1.6	2.9	0.1	1.2	1.3	1.5	-1.0	-
	소매판매(전기비)	1.6	2.2	0.3	0.8	0.4	0.4	-0.3	0.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2	1.5	1.8	1.5	1.4	1.4	1.3	1.1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8.3.9.)」, 「최근경제동향(2018.4.13.)」를 참고하여 재 정리함.

- 중국 경제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출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흐름을 지속함.
- 일본 경제는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소매판매 및 수출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함.
- 유로존 경제는 일부 지표가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으나, 소매판매가 회복세로 전환하였고,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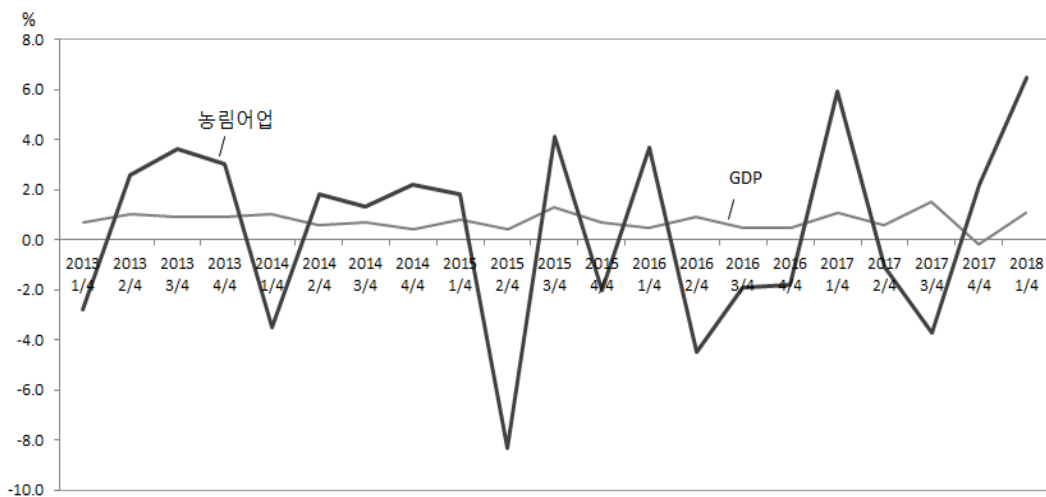
Ⅱ. 농촌경제 동향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18년 1/4분기 7조 5,31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5% 성장함.
- 2018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5조 9,32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성장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7년과 2018년 1/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9)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신유선 연구원(shinys@krei.re.kr), 박동규 명예선임연구위원(dgpark@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8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0.8로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 2017년 4/4분기 대비 5.9%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채소는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과수와 축산물 등은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4.2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전분기 대비 14.9% 상승함.
 - 맥류(쌀보리, 보리쌀)는 전년 동기 대비 27.9% 하락한 반면, 미곡과 서류는 맷쌀·참쌀과 고구마·감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5.1%, 62.1% 상승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2.1로 전년 동기보다 2.7% 상승, 전분기보다 4.6% 하락함.
 - 엽채류는 배추·양배추·부추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6%, 전분기에 비해 24.0% 상승함.
 - 조미채소류는 건고추, 생강, 풋고추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1.7%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28.7% 하락함.
 - 과채류는 수박, 토마토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품목들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0.6%, 전분기보다 30.3% 상승함.
- 과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5.2로 전년 동기 대비 8.8% 하락, 전분기 대비 31.6% 상승함.
 - 사과, 복숭아, 단감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였으나 배·포도·감귤·자두·매실 등은 하락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3.5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분기 대비 5.3% 하락함.
 - 육우와 한우송아지는 상승하였으나 돼지와 육계, 계란은 전년 동기보다 하락함.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7.9로 전년 동기 대비 7.4%, 전분기 대비 21.1%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16	2017	2016	2017	2017	2018	등락률(%)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2.9	107.6	101.3	112.4	104.6	110.8	-1.4	5.9
곡물	280.1	91.8	94.5	89.6	95.0	99.4	114.2	20.2	14.9
-미곡	234.3	89.6	86.5	84.9	84.0	96.0	105.1	25.1	9.5
-맥류	5.5	104.6	95.0	109.8	132.6	87.6	95.6	-27.9	9.1
-두류/잡곡	23.9	100.3	129.7	119.0	140.0	126.2	140.6	0.4	11.4
-서류	16.4	89.6	105.3	72.4	97.2	91.9	157.6	62.1	71.5
청과물	406.5	111.5	121.8	107.6	129.9	118.5	127.0	-2.2	7.2
-채소	268.9	109.3	107.6	115.0	118.9	128.0	122.1	2.7	-4.6
-과수	137.6	115.2	145.4	95.3	148.2	102.7	135.2	-8.8	31.6
축산물	252.6	102.5	105.8	103.7	107.9	98.7	93.5	-13.3	-5.3
-가축	185.1	106.9	101.2	104.3	100.5	98.0	96.0	-4.5	-2.0
-기타	67.5	94.9	113.7	102.7	120.8	99.8	89.1	-26.2	-10.7
기타농산물	60.8	99.7	96.7	95.9	109.8	95.0	117.9	7.4	24.1
-특용작물	42.4	96.4	92.9	89.2	95.7	86.7	94.9	-0.8	9.5
-화훼	15.3	105.5	101.8	106.1	132.7	107.6	158.4	19.4	47.2
-부산물	3.0	97.3	109.2	104.1	113.7	106.0	88.4	-22.3	-16.6

자료: 통계청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8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92.9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비료·농약·사료비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5%, 1.7%, 0.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종묘 가격이 6.7% 상승하였기 때문임.

- 노무비지수는 111.5로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하고, 경비와 자산구입비도 각각 1.7%, 3.6% 상승함.
- 기계구입자수는 104.1로 전년 동기보다 3.4%, 전분기보다 1.2% 상승함.
- 가축구입비는 120.2로 전년 동기보다 3.9% 상승, 전분기보다 0.6% 하락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6	2017	2016	2017	2017	2018	등락률(%)	
		연간	연간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99.3	100.9	99.5	100.3	100.9	101.6	1.3	0.7
가계용품	484.8	101.3	103.3	101.7	103.1	103.2	104.2	1.1	1.0
재료비	250.6	94.7	93.2	94.1	92.8	92.8	92.9	0.1	0.1
–종자종묘	27.5	100.6	100.6	99.7	100.9	99.5	107.7	6.7	8.2
–비료비	39.0	79.3	75.2	79.3	75.2	75.2	72.6	-3.5	-3.5
–농약비	29.3	99.2	96.9	99.2	96.9	96.9	95.3	-1.7	-1.7
–사료비	136.0	96.3	95.4	95.3	94.7	94.9	94.4	-0.3	-0.5
–영농자재비	18.7	100.1	98.3	100.1	98.3	98.3	98.3	0.0	0.0
노무비	45.0	104.1	108.8	105.9	105.7	111.0	111.5	5.5	0.5
경비	129.0	93.9	98.0	96.2	98.2	98.7	99.9	1.7	1.2
–영농광열비	32.6	82.9	94.1	87.1	95.2	97.2	101.7	6.8	4.6
–임차료	40.5	98.5	97.5	97.0	97.0	98.4	98.5	1.5	0.1
–농작업위탁비	42.5	97.3	102.0	102.3	102.3	100.9	100.9	-1.4	0.0
–판매자재비	13.3	96.5	96.5	96.5	96.5	96.5	96.5	0.0	0.0
자산구입비	90.6	106.7	109.4	103.7	105.9	108.4	109.7	3.6	1.2
–기계구입	58.9	99.4	101.3	97.2	100.7	101.7	104.1	3.4	2.4
–가축구입비	31.7	120.3	124.4	115.7	115.7	120.9	120.2	3.9	-0.6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8년 1/4분기 농업 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1.8% 상승한 97.5임.
- 2018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9.1로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하였고, 전분기 대비 5.2% 상승함.
 - 1/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4%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 가격은 1.3%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농가교역조건지수

구 분	2016	2017	2017	2018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01.3	112.4	104.6	110.8	-1.4	5.9
농가구입가격(B)	99.5	100.3	100.9	101.6	1.3	0.7
농업투입재가격	95.4	95.8	96.7	97.5	1.8	0.9
농가교역조건(A/B×100)	101.8	112.1	103.7	109.1	-2.7	5.2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기중평균임.

3. 농림어업 취업자

- 2018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05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8.0% 감소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3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전분기 대비 3.5% 증가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68만 2천 명, 여성은 6.5% 증가한 37만 5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5.4%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3.2% 감소한 139만 6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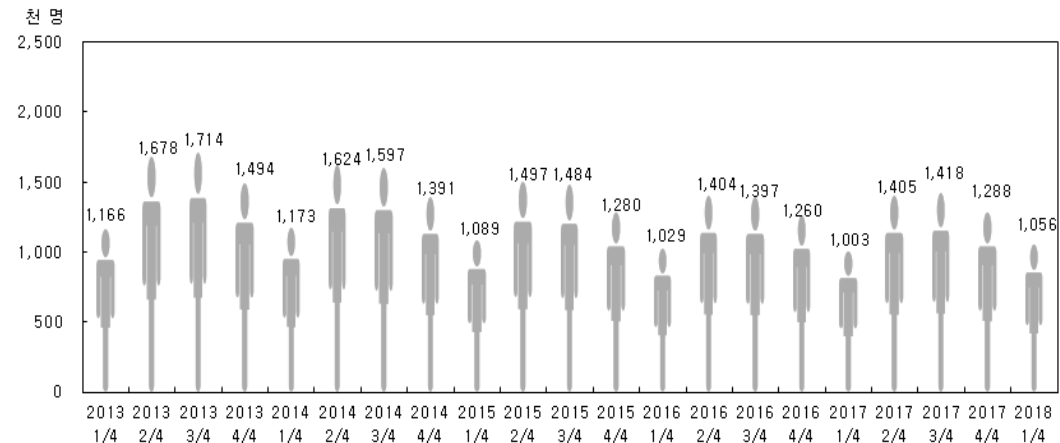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17		2018	증감률(%)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6,100	26,883	26,283	0.7	-2.2
	(계절조정)	(26,666)	(26,814)	(26,851)	0.7	0.1
	농림어업	1,003	1,288	1,056	5.3	-18.0
	(계절조정)	(1,274)	(1,299)	(1,345)	5.6	3.5
	남성	651	771	682	4.8	-11.5
	여성	352	517	375	6.5	-27.5
	농가	1,324	1,608	1,396	5.4	-13.2
	농가남성	803	914	840	4.6	-8.1
	농가여성	520	695	556	6.9	-20.0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7년 3/4분기 141만 8천 명, 4/4분기 128만 8천 명, 2018년 1/4분기 105만 6천 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18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88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함.
- － 곡류(옥수수, 고구마 등)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반면, 축산물은 40.4% 증가함. 한편, 임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41.0%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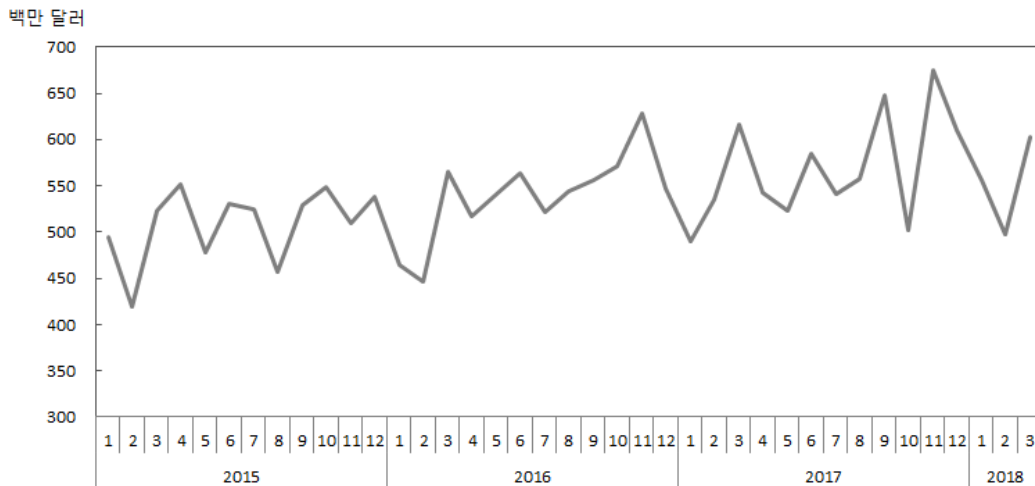
구 분	2016		2017				2018		전년 동기 대비	
	4/4		1/4		4/4		1/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25	1,748	999	1,641	952	1,787	883	1,658	-11.6	1.0
농산물	756	1,498	742	1,457	753	1,589	718	1,482	-3.2	1.7
-곡류	11	9	49	17	13	8	21	24	-56.3	39.1
-과실류	47	98	31	61	43	97	32	71	4.2	16.2
-채소류	27	92	22	86	36	101	33	105	52.1	22.6
축산물	33	129	17	78	21	86	23	80	40.4	3.0
-포유육류	2	10	1	3	0	3	1	3	50.0	0.0
-가금육류	8	12	1	3	4	7	6	9	662.5	220.7
-낙농품	10	55	8	35	8	32	8	30	0.0	-15.2
임산물	237	121	241	106	178	112	142	96	-41.0	-9.2
수 산 물	158	563	115	482	145	592	149	559	29.4	16.0
전 체	1,183	2,311	1,114	2,123	1,097	2,379	1,031	2,217	-7.4	4.4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8년 1/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6억 5,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함.
- － 농산물 수출액은 곡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과 채소류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 증가함.
- － 축산물 수출액은 포유육류와 가금육류의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9.2% 감소함.

- 2018년 3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2018년 2월에 크게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여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2.0% 감소하였으나, 2월보다 21.2%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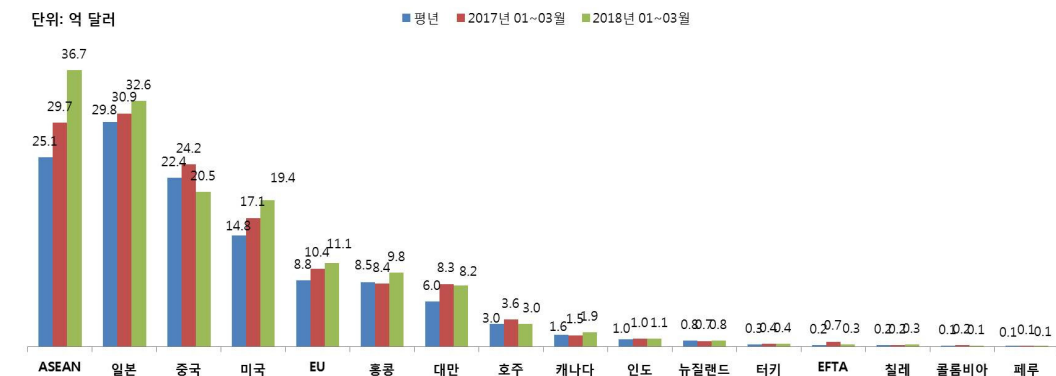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8년 1/4분기 전체 농축산물 누적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6억 6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6.5% 증가한 9억 6천만 달러임.
 - 주요 수출대상국 중 ASEAN, 일본, 미국, EU 등으로의 누적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그중 대ASEAN 수출액(23.5%)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018년 2/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130.9로 전분기 (94.7) 대비 상승하여 수출경기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¹⁰⁾.
 - 이는 최근 중국과의 수출 확대 분위기 조성으로 수출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10) 한국무역협회, '2018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8.03.30).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1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4.2. 수입 동향

- 2018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42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7% 증가함.
 -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은 1.3%, 축산물은 10.3%, 임산물은 4.6% 증가함.
- 2018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함.
 - －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였고, 축산물과 임산물도 각각 13.2%, 16.4% 증가함.
 - － 농산물 중 곡류는 보리, 밀, 옥수수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였으며, 과실류는 오렌지, 망고, 아보카도 등의 수입액 증가로 전년보다 8.6% 증가함.
- 2018년 3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9억 8,72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하고, 2월 대비 18.4%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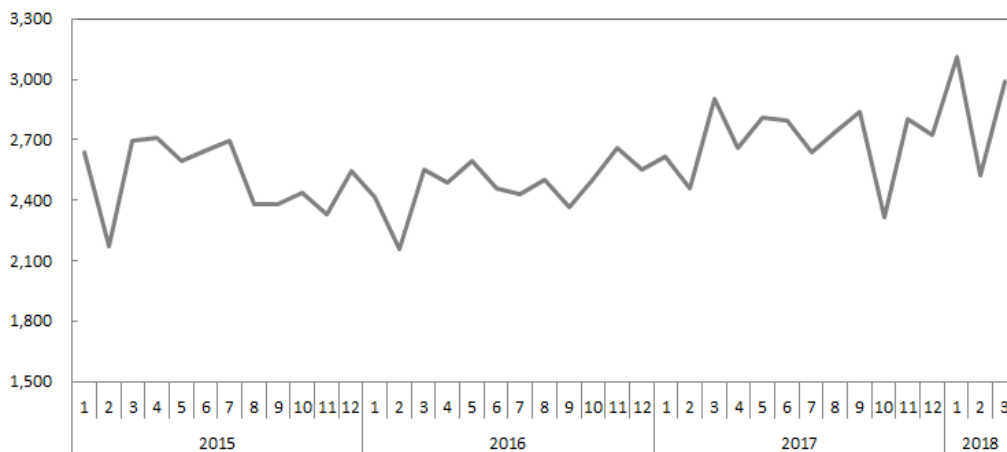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042	7,710	13,079	7,980	13,174	7,837	13,428	8,624	2.7	8.1
농 산 물	8,688	4,663	8,336	4,684	8,239	4,514	8,443	4,841	1.3	3.4
—곡류	3,866	897	3,580	829	3,615	775	3,820	906	6.7	9.3
—과실류	233	338	339	519	233	343	333	564	−1.9	8.6
—채소류	321	288	313	232	351	240	324	234	3.5	0.9
축 산 물	386	1,471	419	1,668	366	1,500	462	1,888	10.3	13.2
—포유육류	223	928	258	1,141	215	933	288	1,274	11.6	11.7
—가금육류	39	82	34	71	37	90	41	89	17.7	26.3
—낙농품	73	215	74	236	62	216	77	272	3.5	15.2
임 산 물	3,968	1,576	4,324	1,628	4,569	1,824	4,523	1,896	4.6	16.4
수 산 물	1,406	1,344	1,267	1,267	1,531	1,403	1,725	1,502	36.1	18.5
전 체	14,448	9,054	14,345	9,247	14,705	9,240	15,153	10,127	5.6	9.5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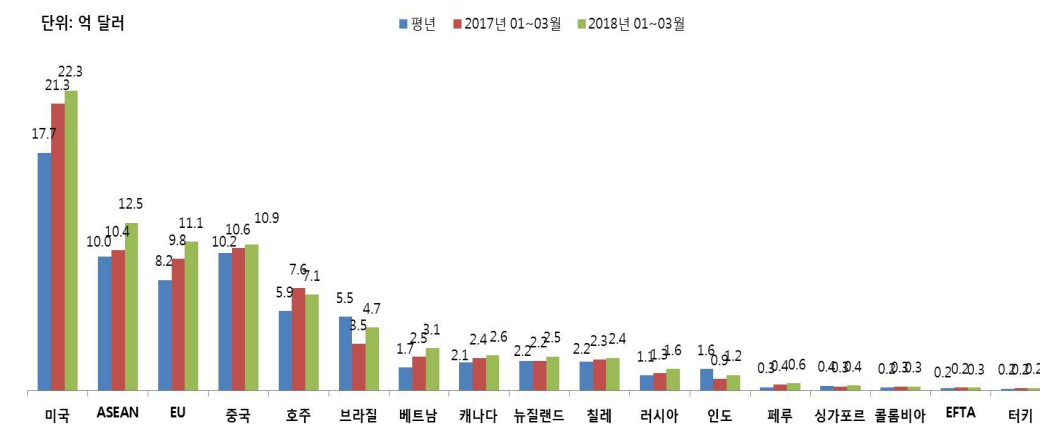
백만 달러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8년 1/4분기 전체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86억 2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7.8% 증가한 74억 달러임.
- － 미국, ASEAN, EU, 중국, 베트남,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부터의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그중 ASEAN산 수입액(19.7%)이 가장 크게 증가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1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4.3. 순수입 동향

- 2018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54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함.
 - － 농산물 순수입량은 772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함.
 -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43만 9천 톤임.
- 2018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69억 6,700만 달러임.
 - － 농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4.1% 증가하였으며,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13.7%,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7년 1/4분기		2018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080	6,339	12,546	6,967	3.9	9.9
농 산 물	7,594	3,227	7,726	3,360	1.7	4.1
축 산 물	402	1,590	439	1,808	9.0	13.7
임 산 물	4,083	1,522	4,381	1,799	7.3	18.2
수 산 물	1,152	785	1,576	943	36.8	20.1
전 체	13,232	7,124	14,122	7,910	6.7	11.0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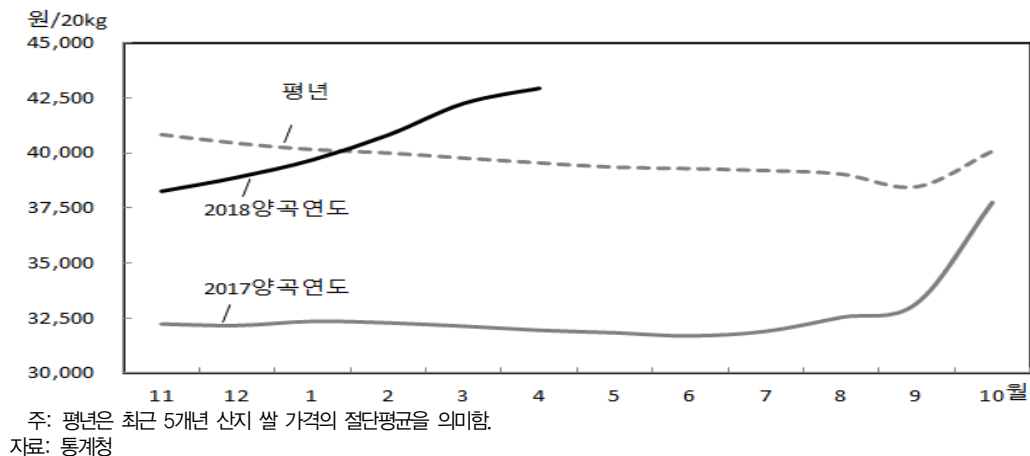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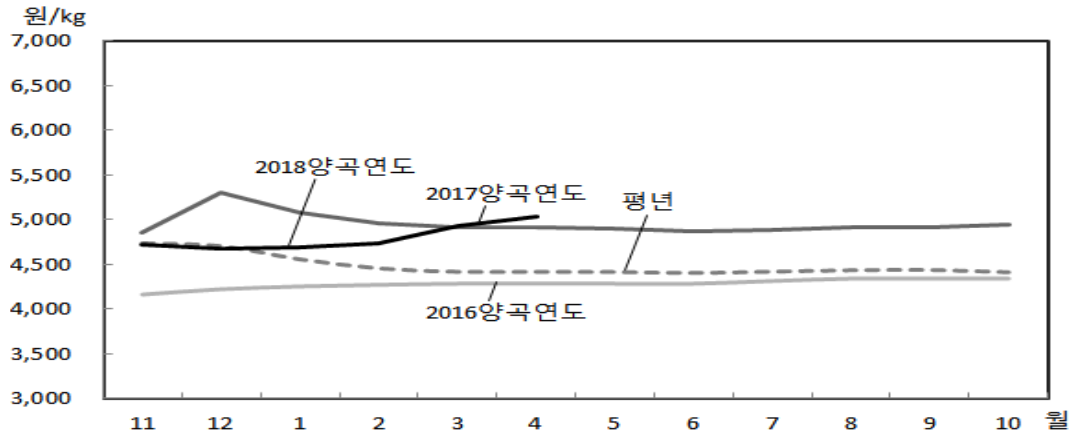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동향
 - 정부의 시장격리물량 확대 등으로 1/4분기 초의 산지유통업체 재고(1월 기준)는 전년 대비 27.0%(35만 6천 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산지유통경색으로 이어져 월 평균 가격 상승폭이 확대(1월: 0.8% → 3월: 1.1%)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종진 연구위원(jkim@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김민현(kimh9107@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신기석(k.shin@krei.re.kr), 윤승원(yse887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한편, 정부는 산지유통업체 재고문제 해결 위해 수확기에 매입했던 산물벼 8만 4천 톤을 방출하기로 결정
- 2018년 3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4만 2,258원/20kg으로 전월 대비 3.5%, 전년 대비 31.5% 상승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산물벼 방출로 재고부족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심리적 불안감이 완화됨에 따라 산지 쌀 가격 상승폭 둔화
 - 4월 산지 평균 쌀 가격은 4만 2,941원/20kg으로 월 평균 가격 상승폭은 0.3%에 그쳐
 - 다만, 산지유통업체 재고는 산물벼 방출을 고려하더라도 전년보다 27만 3천 톤 적어 향후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4월 25일 기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규모는 목표면적(5만ha)의 74%(3만 7천ha)가 달성되어 약 20만 톤의 쌀 생산 감축효과 기대

1.2. 콩

국산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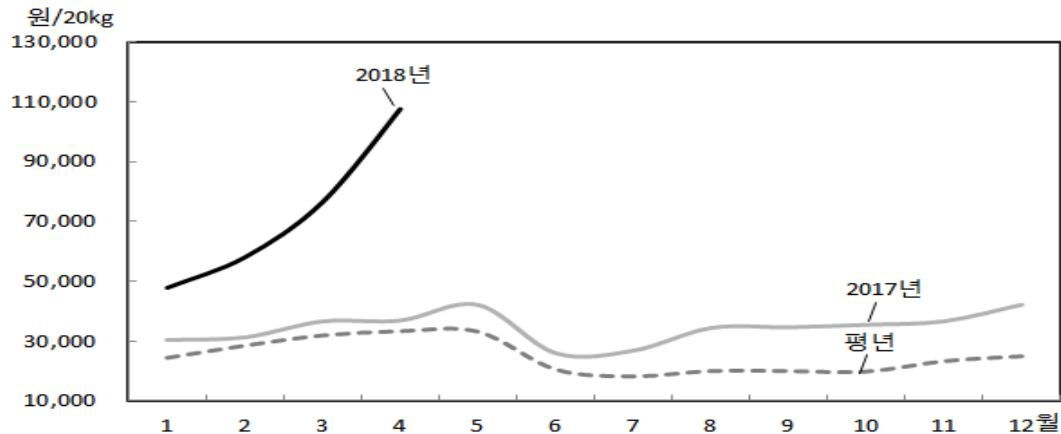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간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8년 1/4분기 동향
 - 2018년 1/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1% 하락, 전분기와 비슷한 4,780/kg이었음.
 - 1/4분기 콩 가격은 2017년산 콩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콩 수매량 또한 증가하였고, 정부가 2016~2017년산 수매콩 방출을 자제하면서 시장 공급량이 감소하여 1월 이후 강보합세를 보였음.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 4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5,032원/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 전월 대비 2.2% 높은 수준임.
 - 콩국수 등 계절메뉴 준비를 위한 음식점의 콩 소비 증가하고 정부 콩 재고 물량 방출이 상반기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산 콩 도매가격은 2/4분 기에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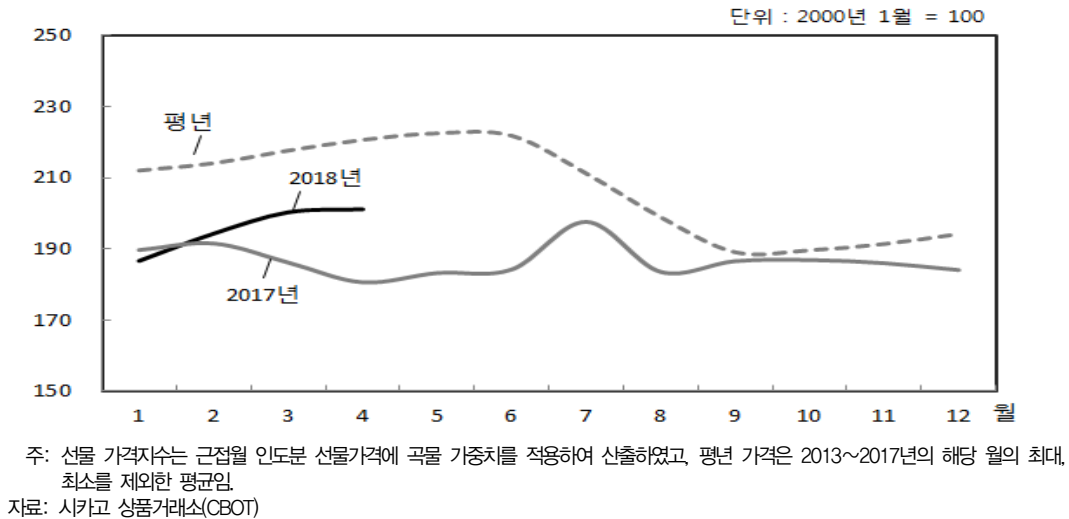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해당 월간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수미 평균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60,784원/20kg로 전년 동기 대비 85.6%, 평년 동기 대비 114.9% 높은 수준임.
 - 3월 이후 저장고랭지감자 물량이 대부분 소진되었고, 1~2월 한파 피해 등으로 시설 봄감자 작황이 부진하여 감자 가격이 급등하였음.
 - * 2017년 고랭지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18.9%, 평년 대비 17.5% 감소한 9만 8,885톤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수미 도매가격은 107,593원/20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8%, 전월 대비 40.7% 높은 수준임.
 - 5월 수미 도매가격은 전북 지역 시설 봄감자의 작황 부진, 파종기 기상 악화로 인한 남부 지역 노지 봄감자 출하 지연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6월 중순 이후 출하가 지연되었던 남부 지역 노지 봄감자 출하가 타지역과 맞물려 감자 홍수출하가 발생하여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 2018년 1/4분기 동향
 - 2018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00년 1월=100)는 전 분기 대비 4.4% 상승한 193.7임.
 - 이는 연초 가뭄으로 인한 미국 겨울밀과 아르헨티나의 콩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임.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주요 곡물 주산지의 가뭄 지속, 국제유가 상승, 웨더마켓(weather market) 시즌 진입에 따른 곡물 주산지의 작황 변동 가능성 등으로 전 분기 대비 3.5% 상승한 200.4로 전망됨.
 - 2018년 4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201.1임. 5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¹²⁾는 -0.61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단계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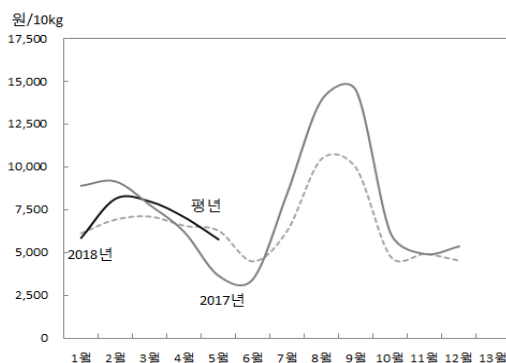
12) 국제곡물조기경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조정 하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운영함. 조기경보 지수는 0.0 이하 ‘안정’, 0.0~0.5 ‘주의’, 0.5~1.0 ‘경계’, 1.0 이상 ‘심각’을 나타냄.

- 2018년 3/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0.2% 하락)인 200.0으로 전망됨.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낮아 전반적인 기상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웨더마켓(weather market) 시즌 진행과 금융 자본의 선물 시장 유입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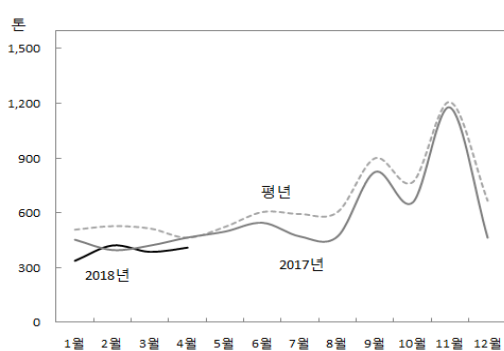
2. 엽근채소¹³⁾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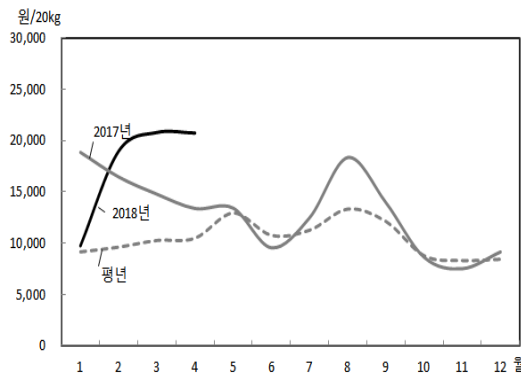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겨울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15% 낮은 7,320원/10kg임.
 - * 2018년 가격: (1월) 5,860원/10kg, (2월) 8,150원, (3월) 7,990원
 - * 1/4분기 가격: (2018년) 7,320원/10kg, (2017년) 8,580원, (평년) 6,720원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 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적으나, 평년보다는 많은 25만 6천 톤 전망
 - * 시설봄배추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4%, 2% 감소한 6만 3천 톤
 - *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20% 감소하나, 평년 보다는 11% 증가한 19만 3천 톤
 - 2/4분기 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15% 적으나, 평년보다는 10% 내외 많을 전망
 - 2/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4,440원/10kg) 보다 높으나, 평년(5,760원)보다는 낮을 전망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최병욱 연구위원(bchooi@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황민지(tree3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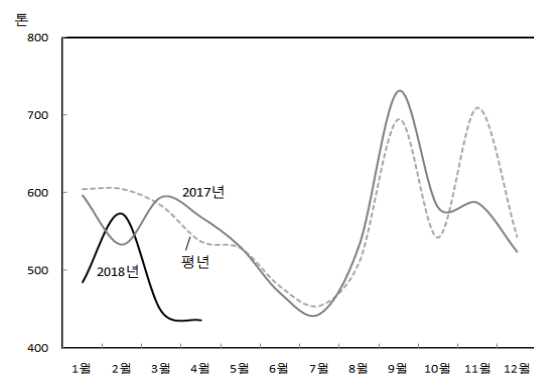
- 2018년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7%, 1% 감소할 전망
 - * 최근 연작피해가 심해지는 강원 삼척, 태백, 정선은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작황이 좋았던 평창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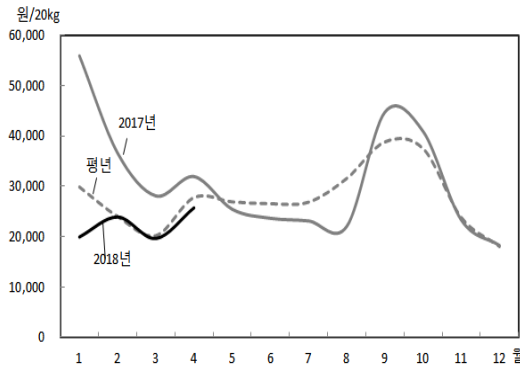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8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16,500원/20kg임.
 - 1/4분기 가격은 월동무 한파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태풍 ‘차바’로 가격이 높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
 - * 2018년 가격: (1월) 9,740원/20kg, (2월) 18,970원, (3월) 20,800원
 - * 1/4분기 가격: (2018년) 16,500원/20kg, (2017년) 16,700원, (평년) 9,670원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 봄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적으나, 평년과 비슷한 12만 5천 톤 내외 전망
 - * 시설봄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4% 감소한, 평년보다는 49% 증가한 2만 2천 톤
 - * 노지(터널 포함)봄무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6%, 7% 감소한 10만 3천 톤
 - * 봄무는 생육기 큰 일교차, 일조량 부족, 잦은 강우 등으로 초기 작황은 부진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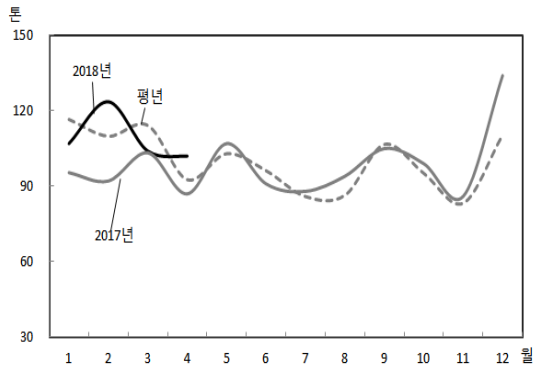
- 2/4분기 무 출하량은 월동무 저장 및 시설봄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20%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12,120원/20kg)과 평년(11,400원) 보다 높을 전망
- 2018년 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
 - 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 내외 감소하나, 평년보다 1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최근 월동무 저장 및 시설봄무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준고랭지1기작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인의 계약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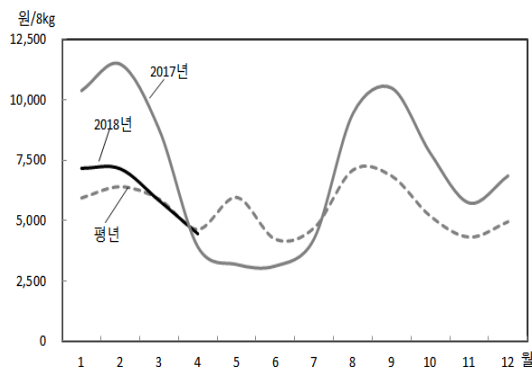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겨울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47%, 14% 하락한 21,160원/20kg임.
 - * 2018년 가격: (1월) 19,940원/20kg, (2월) 23,910원, (3월) 19,630원
 - * 1/4분기 가격: (2018년) 21,160원/20kg, (2017년) 40,210원, (평년) 24,69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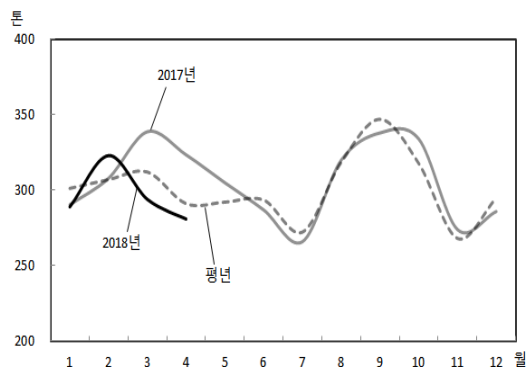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산 봄당근 생산량은 작년보다 2%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11% 증가한 3만 4천 톤 전망
 - * 2018년산 봄당근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 14% 증가한 895ha임.
 - * 봄당근 단수는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3% 감소한 3,784kg/10a으로 예상
 - * 시설봄당근 작황은 겨울철 한파피해로 5월 상순 출하분(수막당근)이 다소 부진한 편이나, 중순 이후 출하분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
 - 2/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봄당근 생산량 감소로 작년(27,010원/20kg) 및 평년(27,080원)보다 높을 전망
- 2018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 2018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지역별로는 작년보다 강릉이 14%, 홍천16%, 평창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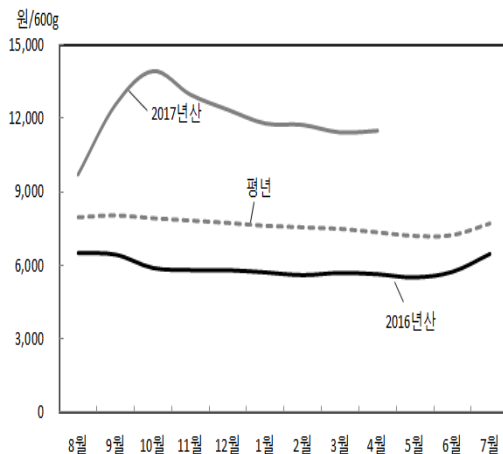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3~2017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8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겨울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34% 낮으나, 평년보다는 10% 상승한 6,710원/8kg임.
 - * 2018년 가격: (1월) 7,160/8kg, (2월) 5,830원, (3월) 5,830원
 - * 1/4분기 가격: (2018년) 6,710원/8kg, (2017년) 10,210원, (평년) 6,070원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8년산 봄양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7%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6% 증가한 7만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5% 증가한 1,512ha, 단수는 평년과 비슷한 4,599kg/10a으로 전망
 - * 봄양배추 작황은 크게 좋았던 작년보다 부진하나, 봄철 기온 상승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2/4분기 도매가격은 봄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작년(3,400원/8kg)보다 높겠으나, 평년(4,940원)보다는 낮을 전망
 - * 2018년 2/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봄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평년(4,940원/8kg)보다 낮을 전망
- 2018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2018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지역별로는 작년보다 강원이 21%, 경북이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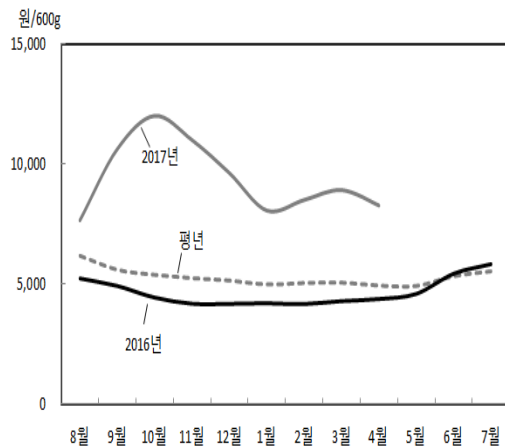
3. 양념채소 14)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2년 8월~2017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8년 1/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1/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각각 106%, 54% 높은 11,66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두 배가량 높은 8,500원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11,657원/600g, (전년) 5,667원, (평년) 7,553원

* 산지가격: (금년) 8,498원/600g, (전년) 4,220원, (평년) 5,028원

-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463톤) 대비 40% 적은 276톤임.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최병욱 연구위원(bochoi@krei.re.kr), 김원태 전문연구원(wtkim@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강지식(jskang@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연구원이 작성함.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4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높은 11,500 원임.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월 대비 각각 89%, 68% 높은 8,280원임.
 - 건고추 2/4분기 도매가격은 국내산 생산량 감소로 2017년 2/4분기(5,625원/600g)보다 높고 1/4분기(11,657원) 대비 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산 가격 강세로 2017년산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작황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와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조사됨.
- * 지역별로는 영남이 3%, 충청 1% 정도 증가하나, 호남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2018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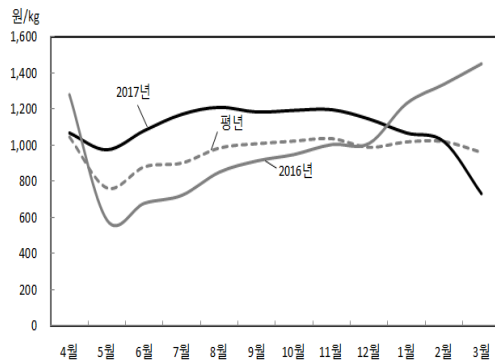
단위: %

	노지재배		비기림재배	전체
	말청	터널		
경기·강원	-0.6	0.0	6.2	0.0
충 청	1.1	-0.5	0.9	0.9
호 남	-0.5	-0.1	3.1	-0.2
영 남	5.4	0.5	3.1	3.1
전 국	2.0	0.0	3.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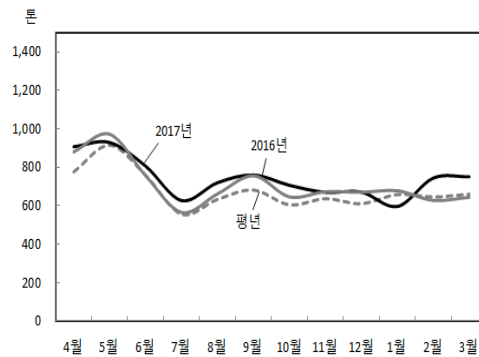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3년 4월~2018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국내산 저장양파 및 수입산 양파의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30% 낮은 상품 kg당 940원이었음.
 - 월별 가격은 1월 1,070원, 2월 1,020원, 3월 730원으로 하락세를 보였음. 특히, 3월에는 저장양파의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월 대비 28% 하락하였음.
 - * 1/4분기 도매가격: (금년) 940원/kg, (전년) 1,340원, (평년) 1,000원
- 2018년산 양파 생산 동향
 - 2018년산 양파의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26,418ha로 확정 발표됨(통계청, 4월 27일).
 -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3,569ha, 중만생종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22,849ha임.
 - 2018년산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36% 증가한 155만 9천 톤 내외로 전망됨.
 - 품종별 생산량은 조생종양파가 전년보다 19% 증가한 20만 9천 톤, 중만생종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1,349만 톤으로 전망됨.

* 2018년산 조생종 양파의 10a당 수확량은 2017년산보다 7% 감소한 5,865kg, 중만생종은 전년보다 2% 증가한 5,906kg이 전망됨. 따라서 양파 전체 단수는 전년대비 1% 증가한 5,900kg으로 전망됨.

2018년산 양파 추정 생산량

단위:ha, kg/10a,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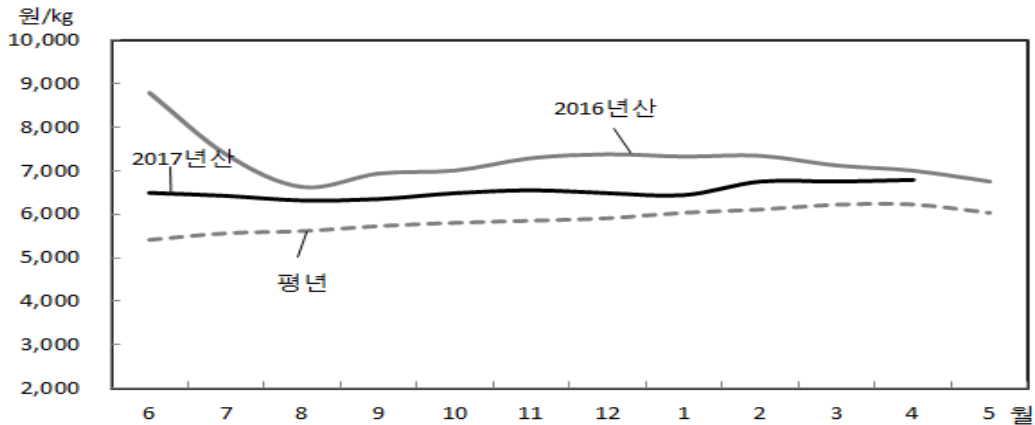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8		26,418	5,900	1,559
2017		19,538	5,858	1,144
평년		19,681	6,315	1,243
증감률	전년 대비	35.2	0.7	36.2
	평년 대비	34.2	-6.6	25.4

주: 2017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자료: 통계청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770원으로 전년보다 낮지만, 전월 하순(640원)보다 20% 높았음. 2017년산 재고양파의 반입 비중이 감소하고 햇양파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상승하였음.
 - 5~6월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1,03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2년 6월~2017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8년 1/4분기 동향
 - 간마늘 1/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7년산 재고량이 많았고, 민간 수입량도 늘어 전년 동기보다 8% 낮은 수준이었음.
 - * 1/4분기 평균 도매가격: (금년) 6,648원/kg, (전년) 7,265원/kg, (평년) 6,122원/kg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간마늘 도매가격은 2017년산 재고량 증가로 전년 대비 3% 낮은 kg당 6,790원이었음.
 - * 4월 도매가격: (금년) 6,790원/kg, (전년) 7,003원/kg, (평년) 6,226원/kg
 - 2018년 2/4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2017년산 재고마늘 및 2018년산 마늘 생산량이 많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2017년산 국내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재고량

연산		입고량(톤)	출고량(톤)	감모량(톤)	재고량(톤)
2017		95,889	70,376	2,716	22,797
2016		92,973	79,117	1,560	12,295
평년		107,000	92,000	1,358	13,643
증감률 (%)	전년 대비	3.1	-11.0	74.1	85.4
	평년 대비	-10.4	-23.5	100.1	67.1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7년산 10.6%, 2016년산 11.3%, 평년 9.1%)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농협의
 수매·비축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되었으며, 정부 TRQ는 미포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3. 재고량과 출고량은 4월 말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8년산 마늘 생산 동향

-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4%, 20% 증가한 28,351ha(통계청, 4월 27일).
 -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5,379ha, 난지형은 대서종을 중심으로 17% 증가한 22,972ha
- 2018년산 마늘 생육은 전년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
 -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4. 20), 2018년산 마늘 생육은 전년 대비 ‘좋음’ 24%, ‘비슷’ 61%, ‘나쁨’ 15%
 - * 월동기 동해 발생 후 3월 기상호조로 생육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4월 잦은 강우와 고온으로 병충해 확산 중

2018년산 마늘 전년 대비 생육 상황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전체
경기·강원	0.0	28.6	71.4	100.0
충청	3.9	79.9	16.1	100.0
호남	16.8	76.0	7.2	100.0
영남	49.8	25.4	24.9	100.0
제주	14.8	68.9	16.4	100.0
전체	24.3	60.7	15.0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018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망

* 2018년산 마늘 10a당 예상단수는 조사치를 활용할 경우 1,240kg, 농업관측본부 단수예측 모형은 1,284kg 추정

2018년산 마늘 단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2.5	2.3	-2.1	1.1	-	1.5
난지	-8.4	-4.0	1.2	5.9	-5.8	1.6
전체	-8.3	-1.4	1.1	5.1	-5.8	1.6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8년산 마늘 생산량 평년 대비 15% 내외 증가 전망

* 2018년산 마늘 예상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8%, 15% 많은 35만 8천 톤 내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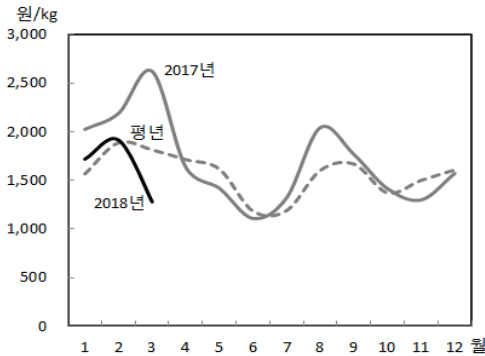
2018년산 마늘 추정 생산량

연산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2018	28,351	1,240~1,284	352~364
2017	24,864	1,221	304
평년	23,728	1,316	312
증감률 (%)	전년 대비	14.0	15.8~19.9
	평년 대비	19.5	12.6~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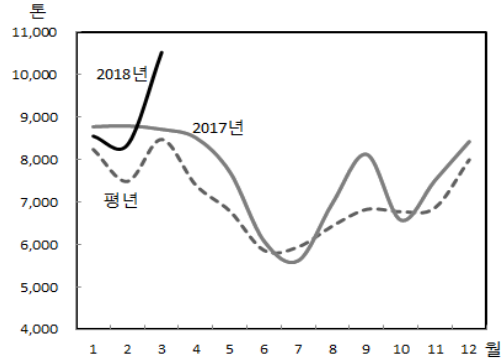
주: 2018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2년 1월~201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1/4분기 동향
 - 대파 1/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640원(중품 1,29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8%, 7% 낮았음.
 - * (금년) 1,636원/kg, (전년) 2,277원, (평년) 1,755원
 - * (1월) 1,717원/kg, (2월) 1,913원, (3월) 1,278원
 - 1~3월 평균 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 13% 많았음. 1~2월 반입량은 겨울대파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한파에 따른 작업량 감소로 전년 보다 적었으나, 3월은 21% 많았음.
 - 3월 가격은 출하가 지연되었던 겨울대파가 집중적으로 출하되면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음.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896원/kg으로 전년과 전월보다 각각 45%, 30% 낮았음. 대파의 상품성이 좋지 않았고, 반입량 증가로 가락시장 내 재고가 누적되어 하락세를 보임.
 - 2/4분기 출하량은 봄대파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많으나, 6월부터는 전년

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가격은 경기, 호남 봄대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4~6월 대파 정식의향 면적은 출하기 대파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남지역의 겨울대파 정식의향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감소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논을 중심으로 신규 재배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6월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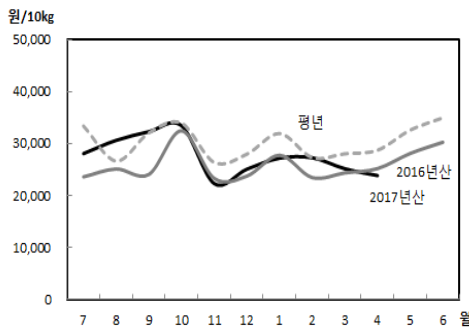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1.8	-1.6	-2.2	-1.4	-2.0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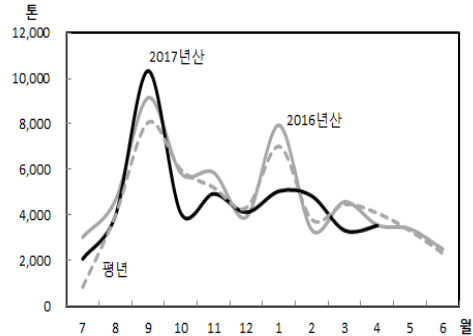
4. 과일¹⁵⁾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2~16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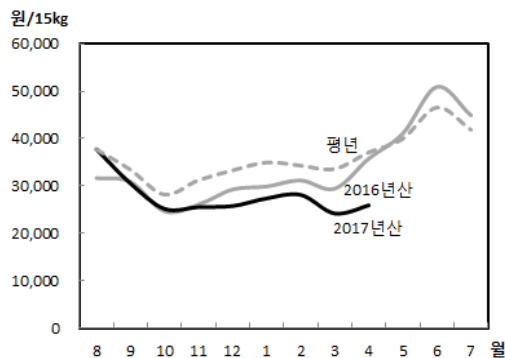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저장량 감소로 반입량이 17% 줄어 전년보다 5%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6,500원이었음.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후지 도매가격은 장기 저장량 증가로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5%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3,800원이었음.
 - 5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21%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당분간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재배면적 추정
 - 2018년 사과 재배면적은 FTA 지원사업 등으로 유목면적이 5% 증가하나,

1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최병욱 연구위원(bchoi@krei.re.kr), 허정희 부연구위원(berliner@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홍승표(df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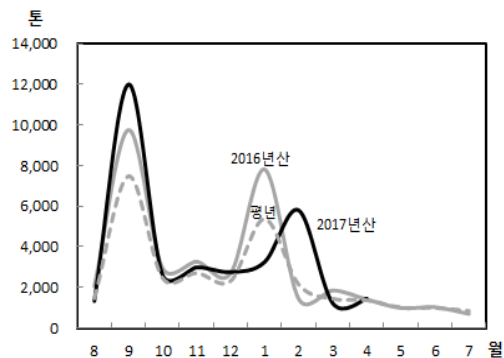
농가 고령화 및 가격 하락으로 성목면적이 2% 감소하여 전년보다 0.4% 증가한 3만 3,738ha로 추정됨.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2~16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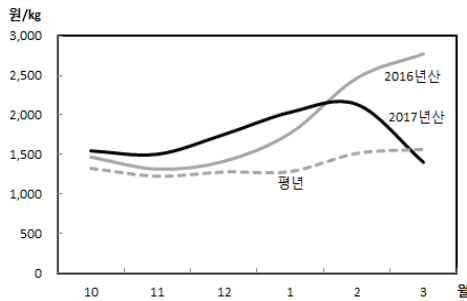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2018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이 7%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과일 소비 증가로 전년보다 12%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6,600원이었음.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28%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5,900원이었음. 5월 이후 출하량도 전년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재배면적 추정
 - 2018년 배 재배면적은 농가고령화, 가격하락, 도시개발 등으로 전년보다 3% 감소한 1만 550ha 수준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신고와 원황 재배면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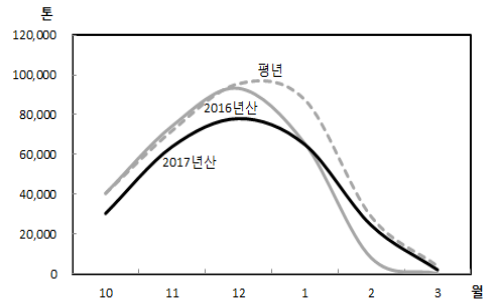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기타 품종(신화, 황금, 추황, 화산 등)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2~16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8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21% 낮은 kg당 1,860원이었음.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5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극조기 가온 면적 및 단수가 소폭 줄어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6월 이후 출하량은 후기 가온 및 무가온 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2%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재배면적 추정
 - 2018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2만 1,335ha로 추정됨. 품종 별로는 노지온주가 전년보다 3% 줄어든 반면, FTA지원사업으로 시설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면서 월동온주와 하우스온주는 각각 2%, 만감류는 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4.4. 포도

- 2018년 재배면적 추정
 - 2018년 포도 재배면적은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재배형태별로는 노지 포도가 전년보다 2% 감소하였고, 시설재배는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2/4분기 전망
 - 4~6월 시설포도 출하면적은 가온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4~5월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하고, 6월에는 전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7월 이후 시설포도 출하면적은 무가온 시설면적 증가와 만생종인 샤인머스캣의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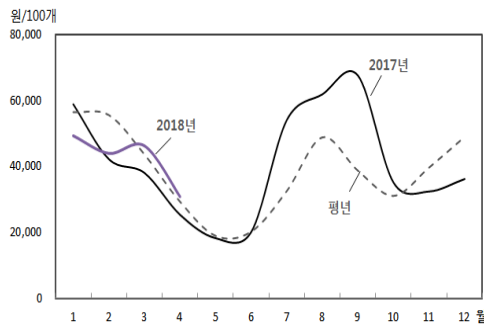
4.5. 복숭아

- 2018년 재배면적 추정
 - 2018년 전체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한 2만 1,548ha로 추정됨. 복숭아 유목면적은 신규식재 및 품종갱신으로 전년보다 4% 증가하였고,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화로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 재배면적은 천도계가 전년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재배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조생종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3% 증가한 반면, 중생종은 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유묘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숙기별로 재배면적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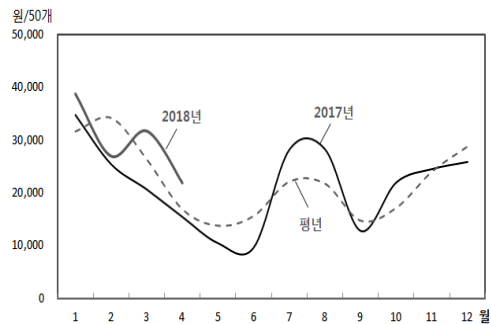
5. 과채¹⁶⁾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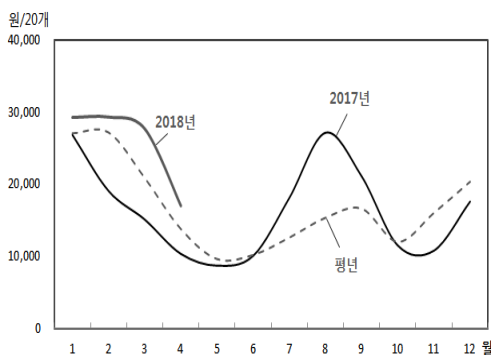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월 49,200원, 2월 43,900원, 3월 46,2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46,3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 1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겨울 작기 재배면적이 늘어 증가하였으나, 2~3월에는 1~2월 한파 피해와 3월 일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1/4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1월 38,700원, 2월 26,900원, 3월은 31,7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한 32,400원이었음.
 - 취청오이 주출하지인 호남의 재배면적이 품목 및 품종전환으로 감소하였고 1~3월 기상 악화로 단수도 감소하여 1/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전년보다 26% 감소함.

1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최병욱 연구위원(bchooi@krei.re.kr), 허정희 부연구위원(berlner@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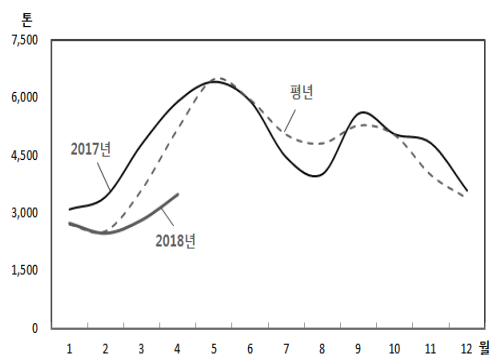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2% 높은 상품 100개에 30,700원이었음. 이는 4월 상순 기온이 하락하고 일조시간이 적어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5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1~2월 한파의 여파와 바이러스 발생, 3~4월 일조량 감소 및 기온하락 등 기상 악화로 단수가 감소하여 전년 동기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6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전년과 비슷하고, 주출하지 변경 및 단수 회복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2% 높은 21,800원이었음. 이는 주출하지인 호남의 재배면적이 줄고, 1~4월 기상 악화로 단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5~6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출하지인 호남의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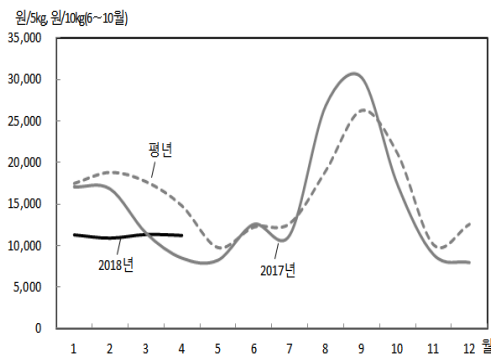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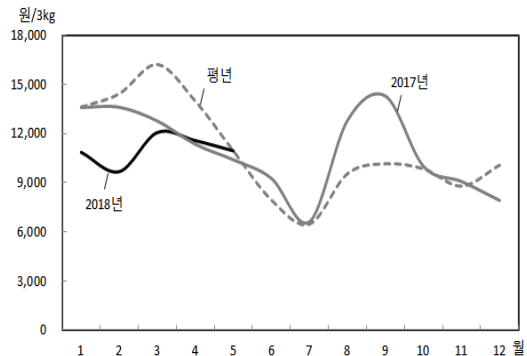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월 29,200원, 2월 29,300원, 3월에는 27,7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41% 높은 28,700원이었음.
 - 1/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하였음. 이는 주출하지인 경남 진주에서 바이러스 피해로 출하를 조기 종료하는 농가가 많아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65% 높은 상품 20개에 17,000원이었음. 이는 주출하지인 경남 진주의 출하면적이 줄고 4월 기상 악화로 단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5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출하면적도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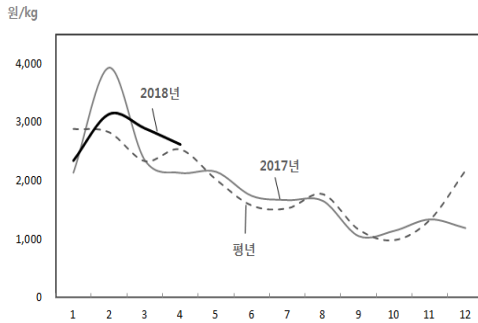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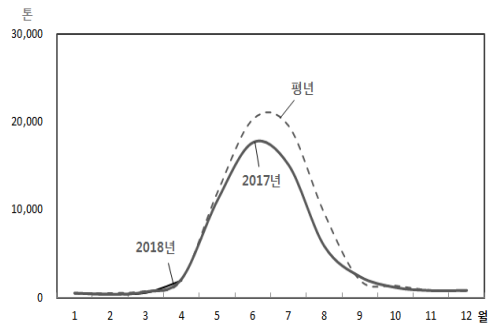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1/4분기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6%, 평년 대비 39%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1,200원이었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1/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3kg 상자에 10,9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낮았음.
 - 일반토마토는 부산광역시와 경남 창녕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출하면적이 늘어나면서 1/4분기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23%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32% 높은 상품 5kg 상자에 11,200원이었고,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상품 3kg 상자에 12,800원으로 전년보다 2% 높았음.
 - 이는 겨울철 한파와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 등 기상여건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4분기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부산광역시에 서는 정식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출하종료시기도 빨라지고, 전남, 경북, 충남지역에서는 생육 부진으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는 농가가 늘어 출하 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경기·강원, 충남, 호남지역의 농가들이 원형에서 대추형으로 품종을 전환함에 따라 출하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겨울철부터 지속된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나, 출하면적이 증가하여 2/4분기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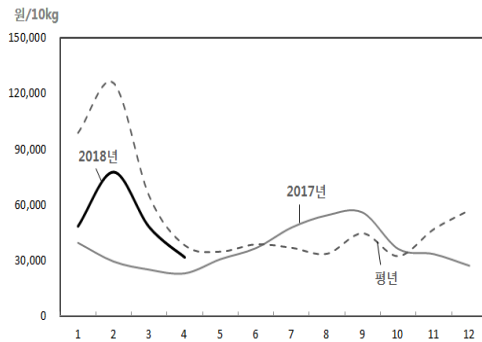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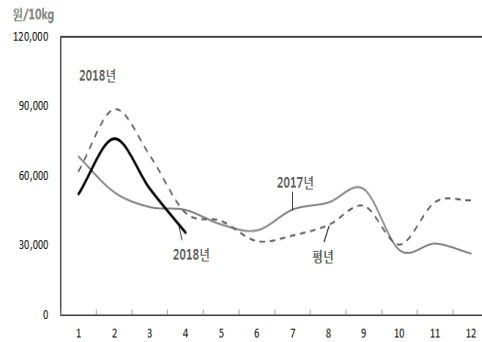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월 2,350원, 2월 3,140원, 3월 2,9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 낮은 2,810원이었음.
 - 수박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하였음.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22% 높은 상품 1kg에 2,620원이었음.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8% 감소하였음. 이는 경남에서 농가 고령화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충청에서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해 생육이 불량하였기 때문임.
 - 5월 수박 출하량은 마늘·양파 등 작목 전환으로 인한 정식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6월 출하면적은 충청에서 정식시기를 앞당겨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5.5.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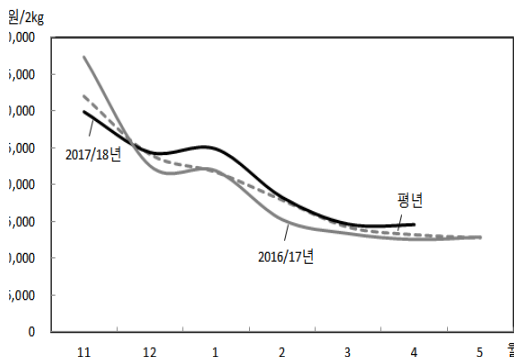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48,500원, 2월 77,700원, 8월 48,0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85% 높은 58,100원이었음.
 -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하였음. 이는 전년 가격이 낮아 경남지역의 정식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52,200원, 2월 76,000원, 3월 54,4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9% 높은 60,900원이었음.
 - 일반풋고추 1~3월 반입량은 주산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21% 적었음.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38%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1,700원이었음. 4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22%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5,500원이었음.
 - 청양계풋고추 4월 반입량은 전년보다 11% 적었으며, 이는 경남에서 전년

가격이 낮아 정식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일반꽃고추 중 녹광의 경우 최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홍고추로 출하하려는 농가가 증가하여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롱그린, 모닝 등은 청양계에서 품종 전환한 농가가 늘어 출하량이 증가하였음.

- 5~6월 꽃고추 출하량은 청양계꽃고추의 경우 정식면적이 감소하였고, 일반 꽃고추(녹광)의 경우 홍고추로 전환되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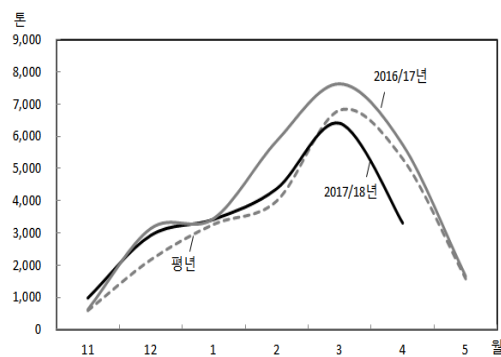
5.6.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딸기 반입량 동향



● 2018년 1/4분기 동향

- 딸기 1/4분기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9,3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하였음.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겨울철 한파 영향과 봄철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으로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였음.

● 2018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딸기 도매가격은 상품 2kg 상자에 14,700원으로 전년보다 16% 높았

- 음. 겨울철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는 농가가 늘고, 봄철 기상여건도 좋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4분기 딸기 도매가격은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는 농가가 늘고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도 불량함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¹⁷⁾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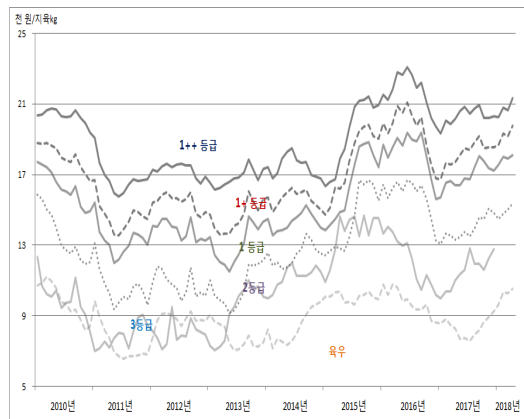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2월	12월	3월	12월	3월
사육 가구 수	107	102	101	99	98
총 마릿수	2,909	2,963	2,885	3,020	2,912
가임 암소	1,339	1,355	1,321	1,380	1,343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2018년 1/4분기 동향
 - 2017년 3/4분기부터 가축동향조사를 이력제 자료로 대체하였으며, 공식자료로 활용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작년 12월(302만 마리)보다 3.6% 감소한 291만 2천 마리였음(전년 동월 288만 5천 마리보다 0.9% 증가).
 - * 3월 한우 사육 마릿수 277만 마리, 육우 14만 3천 마리
 - * 가임암소 마릿수 134만 3천 마리(전년 동월 132만 1천 마리 보다 1.7% 증가)
 - 설 수요와 3월 도축물량 감소로 1/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분기 17,450원/지육kg보다 2.2% 상승한 17,827원임(전년 동기 16,286원보다 9.5% 상승).

1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진년(forever8520@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정세미(wjdtpal55@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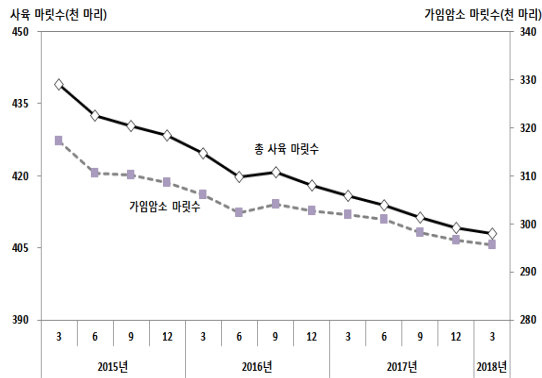
- (한우)2/4분기 동향 및 전망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288만 마리)보다 1.2% 증가한 291만 마리로 전망됨.
 -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월 16,387원보다 10.5% 상승한 18,105원이었음.
 - 5~6월 한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강세인 17,500~18,500원으로 전망됨.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17년(A)	2018년	2018년(B)	B/A
사육 마릿수	6월 288만 마리	3월 277만 마리	6월 291만 마리	1.2%
1등급 도매가격 (자육kg)	—	4월 18,105원	5월 이후 17,500~18,5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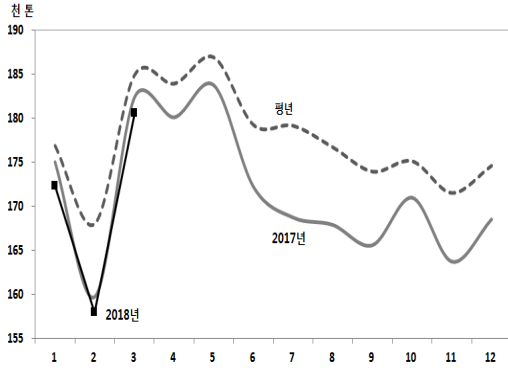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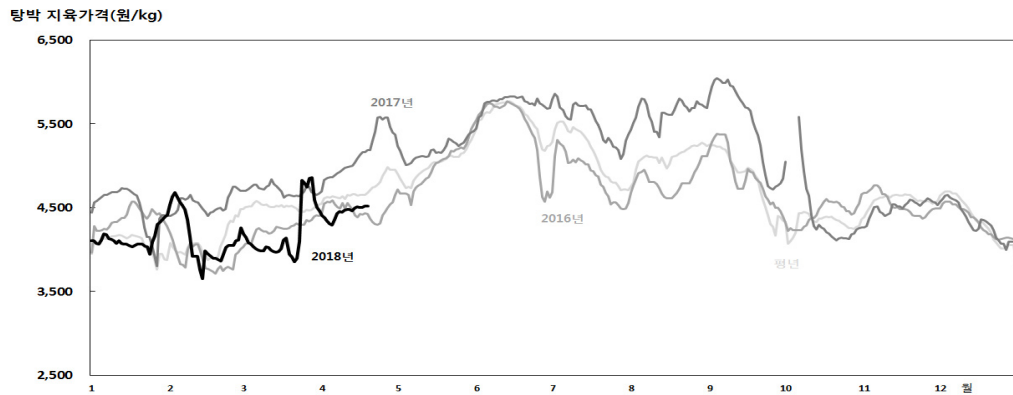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8년 1/4분기 동향
 - 3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한(전분기 대비 0.3% 감소) 40만 8천 마리였음. 유업체별 원유 감산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젓소 총 사육 마릿수는 2014년 이후 감소세에 있음.
 - * 한육우와 젓소는 기존 「가축동향조사」와 「소이력제」 자료 간 소사육두수 차이에 따른 정보이용 혼란 등을 방지하고자 2017년 3/4분기부터 소이력제 자료를 활용하여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공동 작성함.¹⁸⁾
 - 1/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51만 2천 톤임. 이는 사육 마릿수 감소와 동절기 한파, 구제역 백신 접종 등에 의한 생산성 감소에 기인함.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8~1.8% 감소한 52만 7천 톤~53만 2천 톤으로 전망됨.

18) 통계청 「2017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내용 참조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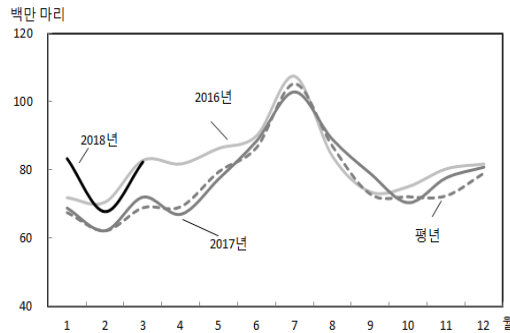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8년 1/4분기 동향
 - 2018년 3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2% 증가한 106만 마리였음. 모든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한 1,116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1/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442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 증가로 1/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4,609원)보다 9.7% 하락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4,163원이었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자돈 생산 증가로 2/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418만 마리로 전망됨.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8년 2/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로 전망됨.
 - 4월 돼지 도매가격은 4,447원이었으며, 5월 4,700~5,000원, 6월 5,200~5,5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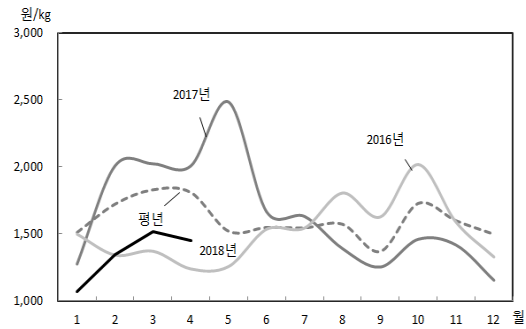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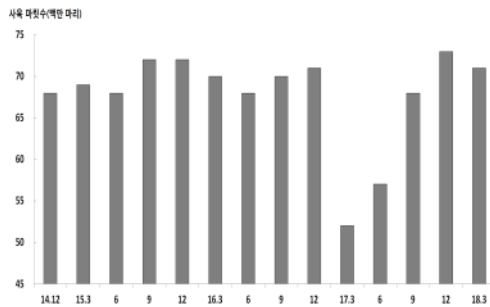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8년 1/4분기 동향
 - 2018년 1/4분기 육용 종계 총 사육 마릿수는 2017년 원종계 수입 공백에 따른 종계 병아리 입식 감소로 전년보다 0.7% 감소한 794만 마리로 추정됨.
 - 1/4분기 도계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작년 동기(HPAI 발생으로 병아리 공급 부족)보다 14.8% 증가한 2억 3천 4백만 마리임.
 - 도계 마릿수 증가로 1/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8% 하락한 1,313원/kg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7년 원종계 수입 증가로 5월 이후 종계 병아리 입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계 성계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병아리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병아리 생산 증가로 2018년 2/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7.8% 많은 수준인 2억 5천 1백만 마리로 예상됨.
 - 4월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공급 증가로 전년 대비 27.9% 하락한 1,448원/kg임. 5~6월 육계 산지가격은 도계 증가로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5~6월: 1,200~1,4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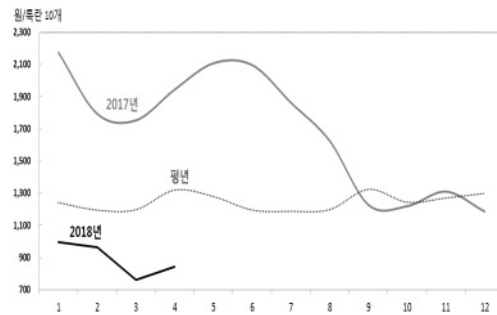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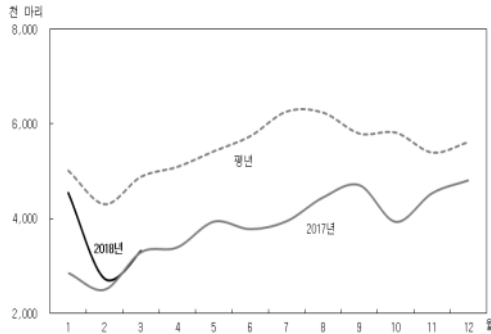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8년 1/4분기 동향
 -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38.2% 증가한 7,132만 마리임.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1~3월)은 896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였음.
 - 산란 성계 도태는 평년보다 36.6% 증가한 1,069만 마리였음.
 - 계란 생산량 증가로 1~3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한 908원(특란 10개)이었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종계와 신계군 입식 증가로 4~6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계란 생산량 증가로 5~6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로 전망됨.
(4월: 847원, 5월: 950~1,050원, 6월: 1,050~1,150원/특란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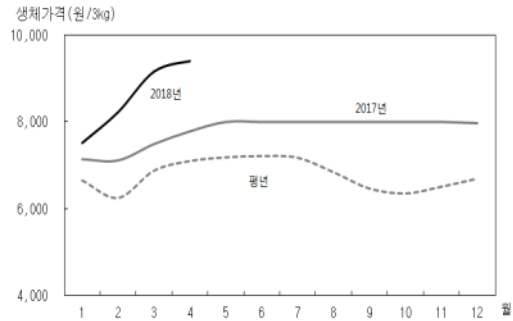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8년 1/4분기 동향
 - 3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547만 마리임. 육용오리는 전년보다 4.2% 감소한 484만 6천 마리였으나, 종오리는 전년보다 21.9% 증가한 62만 4천 마리임.
 - 1/4분기 도압 마릿수는 HPAI 발생으로 도압 마릿수가 크게 감소하였던 전년도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보다 22.5% 증가한 1,059만 마리임.
 - 도압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오리고기 재고량 및 생산량이 부족하여 1/4분기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20.8% 상승한 9,400원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종오리 입식 마릿수 증가로 4~6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52.4% 증가한 2만 4,727톤으로 전망됨.
 - 4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20.8% 상승한 9,400원임. 5~6월 오리 생체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
(5월: 7,700~8,400원, 6월: 6,800~7,400/생체 3kg)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¹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기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7	71.8
	101~300㎡ 이하	64	19.4
	300㎡ 초과	29	8.8
직원수	1~3명 이하	251	76.1
	4~5명 이하	44	13.3
	6명 이상	35	10.6

19)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신유선(shinys@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 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² 이하인 업소가 71.8%로 가장 많고, 101~300m² 이하 19.4%, 300m² 초과 8.8% 순임.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6.1%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18년 1/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65(5점 척도)으로 전년 동기(2.54)보다 상승하였고, 전분기(2.77)에 비해서 하락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7년 1/4분기	2017년 4/4분기	2018년 1/4분기
2.54	2.77	2.65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1/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2/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96.4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18년 1/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8% 증가하였고, 전분기 보다 3.8% 증가함.
 - 감자 1/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9.5% 감소함.
- 2018년 2/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분기(1/4분기)에 비해 각각 0.3%,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3. 채소류

- 2018년 1/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 3.2% 감소함.
 - 엽근채소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6~2.9% 감소하고, 양파와 대파를 제외한 양념채소 구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0.4~25.1% 감소함.

채소류 품목별 1/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2.9	건고추	-25.1
배추김치	-1.8	고춧가루	-2.1
무	-1.7	마늘	-0.4
당근	-0.6	양파	0.8
양배추	-1.8	대파	1.0
소계	-1.2	소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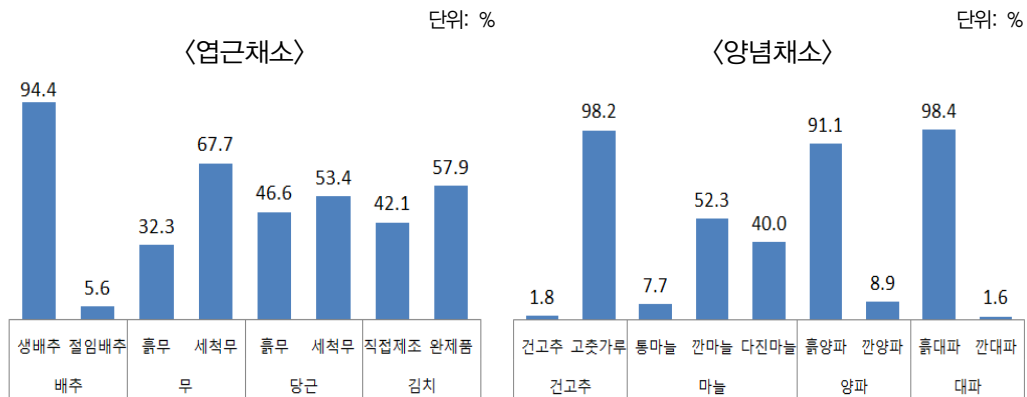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과 동일한 음식점(27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배추(94.4%), 양파(91.1%), 대파(98.4%)이며,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과정을 거친 1차 가공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음식점업체는 전체 응답자 중 42.1%로 절반 이상이 김치 완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017년(1/4분기) 51.9%에서 2018년(1/4분기) 57.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채소류 품목별 구입형태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1/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79.8%), 다진마늘(43.7%), 깐마늘(39.3%), 고춧가루(37.2%), 당근(36.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무, 배추, 대파, 양배추는 전체 구매의 95%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 구매율이 높음.
- 배추는 신선도 유지의 어려움 등 유통과정에서 상품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신선 상태로 수입이 미미하며,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음.
 -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45.7%)’, ‘국내산 가

격 변동이 커서(20.9%)', '국내산과 품질이 비슷해서(14.0%)', '김치 부재료의 가격 상승(12.4%)', '구입이 용이해서(6.2%)'순 등으로 조사됨.

- 국내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업체들은 '겉절이 등으로 이용되기 때문(44.0%)'과 '중국산 김치가 맛이 없어서(37.7%)' 등의 이유로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의 향후 중국산 김치에 대한 사용 의향은 26.5%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7년 1/4분기		2018년 1/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7.4	2.6	98.5	1.5
	배추	98.6	1.4	98.5	1.5
	배추김치	20.1	79.9	20.2	79.8
	당근	63.4	36.3	63.4	36.6
	양배추	96.6	3.4	96.7	3.3
양념채소	건고추	90.0	10.0	73.3	26.7
	고춧가루	59.8	40.2	62.8	37.2
	통마늘	62.6	37.4	69.8	30.2
	간마늘	—	—	60.7	39.3
	다진마늘	—	—	56.3	43.7
	훈양파	81.6	18.4	84.4	15.6
	간양파	—	—	46.0	54.0
	대파	99.4	0.6	100.0	0

주: 원산지 구입 비중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7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2/4분기 엽근과 양념채소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분기(1/4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배추김치를 제외한 엽근채소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분기 대비 0.1~0.4% 증가하고, 양념채소 구매량은 0.1~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0.1	건고추	0.0
배추김치	-0.6	고춧가루	0.2
무	0.0	마늘	0.0
당근	0.4	양파	0.9
양배추	0.3	대파	0.1

주: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7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18년 1/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함.
 - 풋고추와 애호박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3%, 1.4% 증가하였고, 오이는 3.8% 감소함.

과채류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4.3	-3.8	1.4	0.2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7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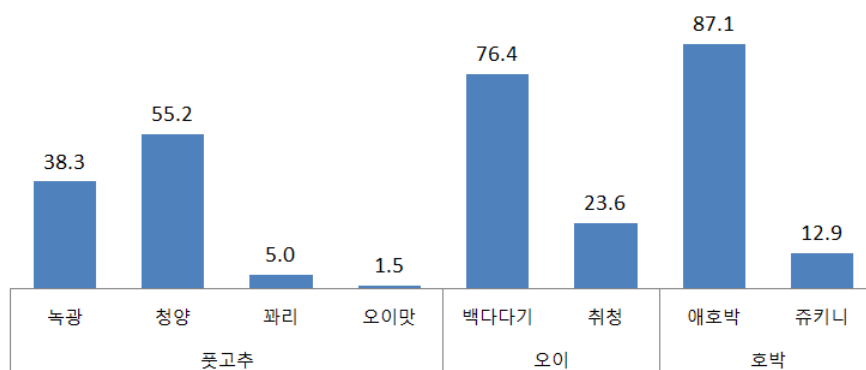
2)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8.3%), 파리고추(5.0%), 오이맛고추(1.5%) 순으로 조사됨.
- 오이는 취청오이보다는 백다다기오이(76.4%)를, 호박은 주키니 품종보다는 애호박(87.1%)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구입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2/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분기(1/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풋고추와 오이의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1.1%, 3.4% 증가하겠으며, 애호박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1.1	3.4	0.3

주: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7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물

- 2018년 1/4분기 오리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계란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0.3~3.1% 증가함.
 - 오리고기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시행 및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의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1% 감소함.

축산물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증감률	0.3	1.3	2.8	-17.1	3.1	0.7

주 1)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7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2) 소계는 오리고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1/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1.3%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호주산은 4.7%p 증가한 반면, 국내산 구입 비중은 2.5%p 감소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72.0%로 전년 동기보다 3.7%p 증가한 반면, 미국산과 캐나다산 다소 감소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3.5%, 88.9%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음.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7년 1/4분기					2018년 1/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5.5		66.6		17.9	13.0		71.3		15.7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68.3	9.9	8.2	10.0	2.7	72.0	7.5	6.0	10.7	2.8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85.6		8.0		5.2	83.5		9.2		6.1
오리고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90.9		9.1			88.9		11.1		

주: 원산지 구입 비중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7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8년 2/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분기(1/4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와 닭고기의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분기에 비해 각각 0.5%,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돼지고기와 오리고기 구매량은 전분기와 비슷하겠으며, 계란은 전분기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축산물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0.5	0.2	-4.2	0.0	4.2

주: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은 330개 음식점패널 중 전년 동기와 동일한 음식점(274개 음식점) 패널 조사치만을 분석한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6. 요약 및 시사점

- 2018년 1/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17년 1/4분기에 비해 2.8% 감소함.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류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쌀, 과채류와 축산류는 증가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춧가루, 통마늘, 흙양파를 중심으로 국내산 구입 비중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70%를 넘으며,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국내산 비중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는 증가함.
- 농산물을 식자재로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해 응답업체의 34.7%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함. 다음으로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진다는(20.1%)고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어려운 점(17.9%)도 문제로 제기함.
- 2018년 2/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예상 구매량은 1/4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류와 과채류 구매량은 전분기보다 증가하나, 곡류(쌀, 감자)는 감소하겠으며, 축산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특별주제

- ①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 ② 가축 방역체계 개선 방안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송성환**, 박혜진***

1. 조사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와 정책현안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말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함. 본 조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43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정 문항과 정책현안 등을 포함한 비고정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이 자료에서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의식변화와 관련된 일부 결과만을 정리함.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2.1. 농업·농촌의 중요성

- ‘국가 경제에서 농업 중요해질 것’ 도시민 77.7%, 농업인 67.8%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지금 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각 41.5%, 60.0%)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본고는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주무원(frog78@krei.re.kr)

- 한편,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도시민은 3.5%, 농업인은 16.0%로 도시민과 농업인 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긍정 응답은 2011년 이후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업인은 2011년 81.3%에서 2017년 67.8%로 13.5%p 감소하였음.
-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이라는 부정 응답은 농업인 30.9%, 도시민 22.3%로 응답하였음. 도시민은 2006년 11.6%에서 2017년 22.3%로 부정 인식이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인식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60.2	81.4	63.7	77.5	61.9	72.4	62.2	73.1	50.0	54.7	45.0	60.9	41.5	60.0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	11.9	7.0	17.0	8.3	15.0	16.9	19.1	17.1	23.6	27.3	19.7	16.3	26.3	17.7
앞으로 중요할 것(소계)	72.1	88.4	80.7	85.8	76.9	89.3	81.3	90.2	73.6	82.0	64.7	77.2	67.8	77.7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치 않을 것	10.2	3.3	8.5	2.1	10.2	4.4	8.4	3.7	10.1	4.1	16.1	1.7	16.0	3.5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16.7	8.3	9.6	9.3	12.4	6.2	9.7	6.1	14.5	13.9	17.2	21.1	14.9	18.8
앞으로 중요치 않을 것(소계)	26.9	11.6	18.1	11.4	22.6	10.6	18.1	9.8	24.6	18.0	33.3	22.8	30.9	22.3
모름/ 무응답	1.1	-	1.2	2.7	0.6	-	0.7	-	1.8	-	2.0	-	1.4	-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8).

2.2.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한 인식

- 농업·농촌 다양한 기능에 대해 농업인보다 도시민의 긍정 인식 높아
 -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10개 항목 중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전

저해/농촌 경관 훼손'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농업인에 비해 도시민의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식품안전성 차원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항목에선 농업인(4.41점)과 도시민(4.70점) 모두 부정 인식을 보였음. 특히, 농업인은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4.66점)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농업·농촌의 기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음	무응답	평균 (점/10.0)
식량의 안정적 공급한다	농업인	936	7.9	23.8	61.5	1.7	5.0	6.81
	도시민	1,500	7.6	12.5	79.9	0.0	0.0	6.88
국토의 균형발전 이바지	농업인	936	16.5	24.9	50.4	2.5	5.8	6.12
	도시민	1,500	9.1	16.4	74.5	0.0	0.0	6.59
일자리 창출	농업인	936	24.1	26.2	42.5	1.5	5.7	5.69
	도시민	1,500	27.3	24.7	48.1	0.0	0.0	5.46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농업인	936	8.4	18.7	66.0	1.2	5.7	7.07
	도시민	1,500	8.9	16.9	74.3	0.0	0.0	6.61
전통문화를 계승/여가를 보내는 공간	농업인	936	15.1	25.0	53.2	0.9	5.9	6.28
	도시민	1,500	8.1	11.7	80.2	0.0	0.0	6.87
식품안전성 차원에서 신뢰하기 어려움	농업인	936	40.7	31.0	20.7	1.2	6.4	4.41
	도시민	1,500	46.3	23.5	30.2	0.0	0.0	4.70
농촌지역 난개발 등으로 국토발전 저해/농촌경관 훼손	농업인	936	22.1	21.6	49.0	1.2	6.1	5.92
	도시민	1,500	42.2	24.7	33.1	0.0	0.0	4.88
정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	농업인	936	37.3	27.6	28.0	1.3	5.9	4.66
	도시민	1,500	28.1	27.5	44.4	0.0	0.0	5.35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10).

2.3. 타산업과 비교한 농업에 대한 인식

-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더 긍정적
 -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다'(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합산)는 도시민은 29.4%(부정적 37.3%), 농업인

15.4%(부정적 68.2%)로 나타나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14.0%p에 달하였으며, 농업인 스스로 농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른 산업 또는 직업과 비교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단위: 명, %

항목	사례 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적 (소계)	비슷 하다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적 (소계)	모름/ 무응답	평균 (점)	t/F
농업인	936	10.4	57.8	68.2	13.9	14.5	0.9	15.4	2.6	2.36	-15.418***
도시민	1,500	0.9	36.5	37.3	33.3	29.1	0.3	29.4	0.0	2.92	

주: *p<.05, **p<.01, ***p<.001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13).

- 10년 전 대비 농업 상황에 대해 도시민 54.3%, 농업인 27.1%가 좋아졌다고 인식
 -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에 대해 ‘좋아졌다’는 도시민은 54.3%, 농업인은 27.1%로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2배 정도 나타남.
 - 특히, ‘매우 나빠졌다’는 의견은 농업인(20.0%)이 도시민(1.3%)보다 무려 20배에 달해, 현재 농업 상황에 대한 도-농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10년 전 대비 우리나라 농업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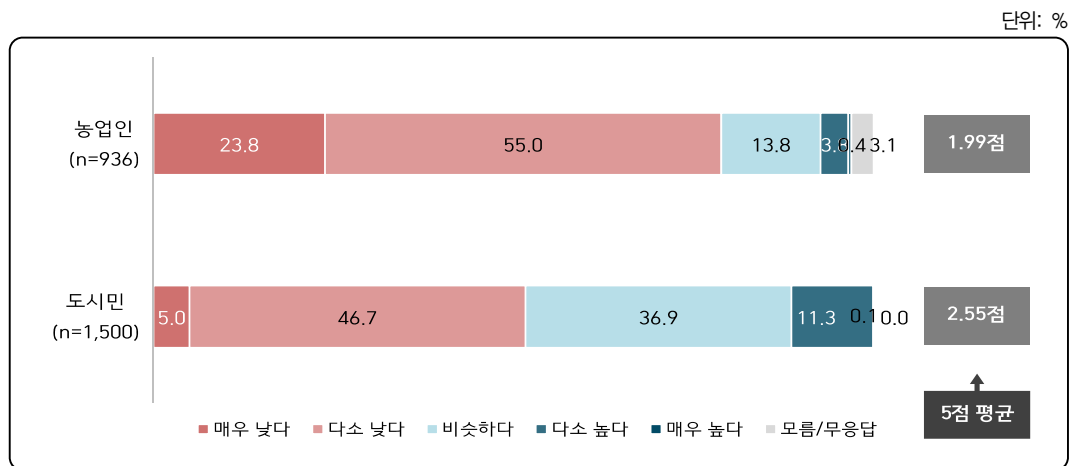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6년		2017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약간 좋아졌다	29.4	45.9	24.5	42.5	23.0	48.5
매우 좋아졌다	9.5	9.9	7.3	6.2	4.2	5.8
좋아짐(소계)	38.9	55.8	31.8	48.7	27.1	54.3
비슷하다	16.1	30.9	15.8	33.3	18.7	33.1
약간 나빠졌다	25.5	9.7	25.6	14.5	32.5	11.3
매우 나빠졌다	17.8	3.5	24.8	3.6	20.0	1.3
나빠짐(소계)	43.3	13.2	50.4	18.1	52.5	12.6
모름/무응답	1.7	—	2.0	—	1.7	—
5점 평균	2.9점	3.5점	2.6점	3.3점	2.6점	3.5점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14).

2.4. 농촌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 농업인, 10명 중 8명 도시생활 대비 농촌생활 수준 ‘낮다’
 - 도시생활 수준 대비 농촌생활 수준이 ‘낮다’는 의견은 농업인 78.8%, 도시민 51.7%로 나타남. 또한, ‘비슷하다’는 도시민 36.9%, 농업인 13.8%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촌생활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도시생활 수준 대비 농촌생활 수준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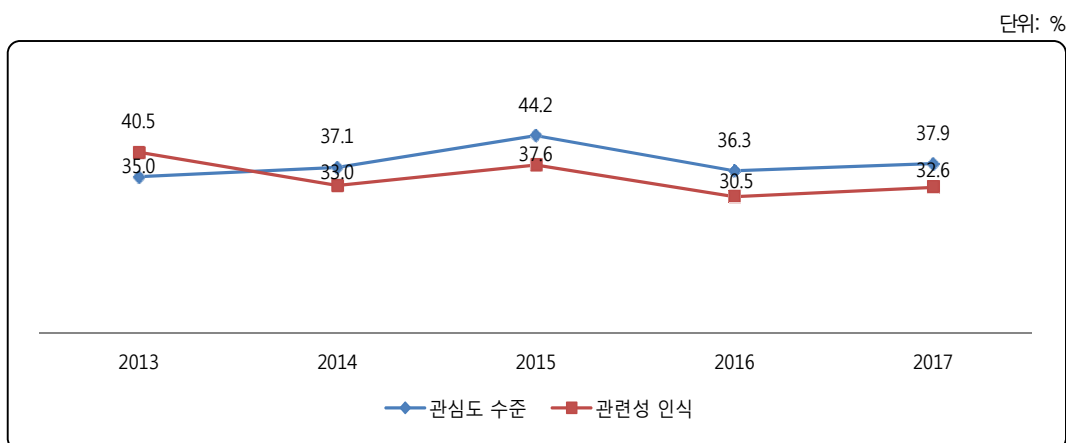
- 농업인, 행복도 감소 요인으로 ‘재정상태’와 ‘건강’ 꼽아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여 종합행복지수를 살펴본 결과, 10점 만점에 농업인은 6.6점, 도시민은 7.1점으로 조사되었음.
 - 영역별 행복점수를 측정한 결과, 농업인의 경우에 ‘가정생활’의 행복점수가 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생활’(7.0점),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6.8점), ‘건강상태’(5.9점), ‘재정상태’(5.2점)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농업인의 경우에 ‘건강상태’와 ‘재정상태’가 종합행복지수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3.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3.1.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

- 도시민,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
 - 도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질문한 결과, ‘많다’는 응답이 37.9%, ‘관심이 없다’는 29.6%로 ‘많다’는 응답이 8.3%p 높게 나타남.
 - 한편, 도시민의 41.6%가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2.6%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와 나와의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였음.
 -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에 대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관심도(35.0%)에 비해 관련성(40.5%)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부터는 관련성에 비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특히,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의 인식 격차는 2015년 이후(2015년 6.6%p→2016년 5.8%p→2017년 5.3%p)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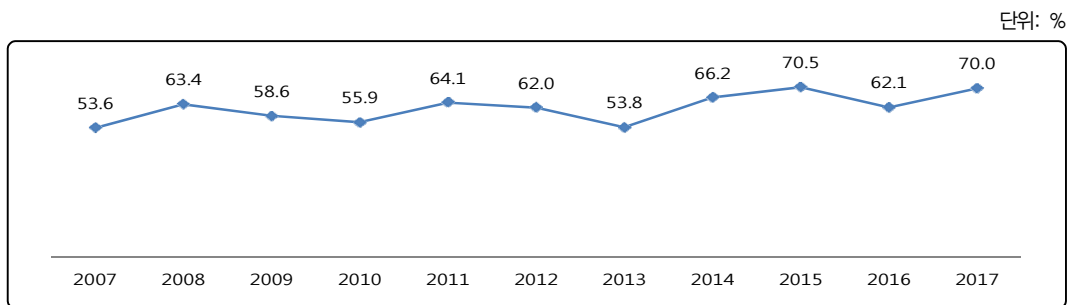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25).

3.2. 도시민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식

- 도시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 전년대비 7.9%p 증가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7명이 ‘많다’(70.0%)고 응답하였고, ‘없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응답은 최근 10년 전(53.6%), 5년 전(62.0%), 올해(70.0%)까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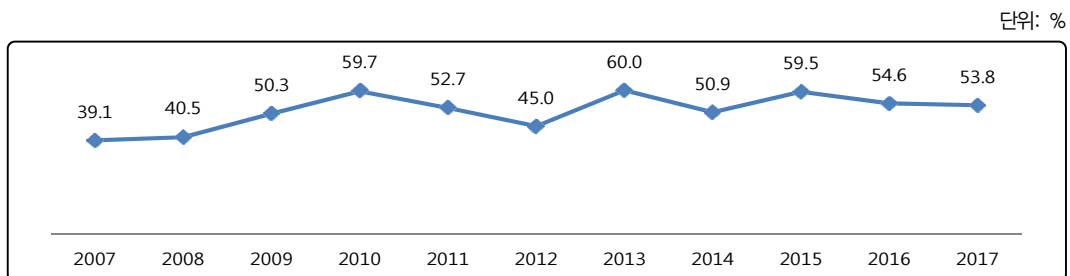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많다’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26).

-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5명이 ‘찬성한다’(53.8%)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41.4%로 나타남. 비용 부담에 찬성 의견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도 증가하고 있음.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크게 감소하였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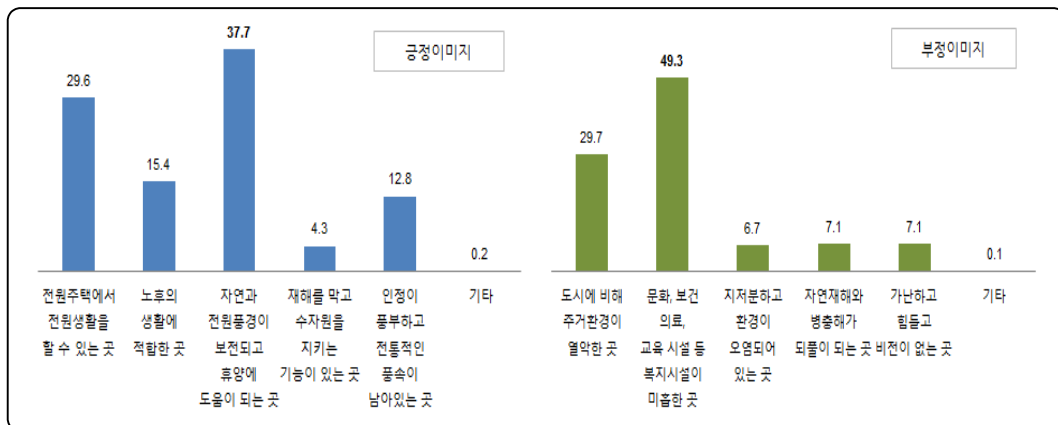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27).

3.3.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

- 도시민, 농촌은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존되는 곳’이지만 ‘복지 미흡한 곳’으로 인식
 - 농촌에 대한 긍정 이미지로 도시민은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37.7%)을 가장 많이 꼽았음. 다음으로 ‘전원주택에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29.6%), ‘노후의 생활에 적합한 곳’(15.4%)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농촌에 대한 부정 이미지로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49.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29.7%)이 높게 나타남.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

단위: %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정포커스 제161호(2018: 7).

3.4. 농업인 세제혜택 및 농촌복지 예산에 대한 인식

- 도시민 50.9%, 농업인 대상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 혜택(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제

등)에 대해 도시민의 절반은 ‘긍정적’(50.9%)이라 응답하였으며, 10.5%는 부정적으로 나타남.

- 도시민, 농촌복지 예산 확대에 찬성비율 높으나,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 농촌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도시민 과반이 ‘찬성한다’(51.3%)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14.8%로 조사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찬성’ 응답은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는 반면, ‘반대’ 응답은 증가하고 있음.

농업인 세제혜택 및 농촌복지 예산 확대에 대한 생각

단위: %

항목	사례 수	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부정적 (소계)	보통	대체로 긍정적	매우 긍정적	긍정적 (소계)
세제혜택	1,500	0.4	10.1	10.5	38.6	48.5	2.4	50.9

농촌복지 예산 확대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찬성	75.4	73.3	63.4	63.5	68.1	56.1	50.0	54.2	61.9	59.3	51.3
잘 모르겠다(보통)	21.3	22.7	31.4	30.1	25.3	31.8	37.0	38.7	30.3	31.4	33.9
반대	3.4	3.9	5.3	5.3	6.6	12.1	13.0	7.1	7.8	9.3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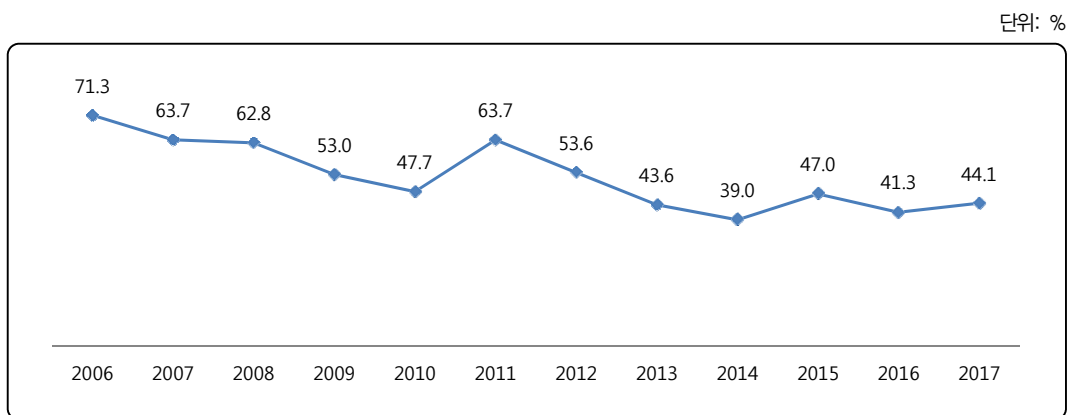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29~30).

3.4.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

- 도시민, 10명 중 4명 귀농·귀촌 의향 ‘있다’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4.1%로 전년보다 2.8%p 증가하였으며, 의향이 ‘없다’는 53.9%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0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없다’는 응답(2007년 36.3%→ 2012년 46.5%→ 2017년 53.9%)은 증가하고 있음.

- 귀농·귀촌 의향자(n=661)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1%)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8.3%)라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생계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5.7%), ‘농업을 경영해 안전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3.8%)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귀농·귀촌 의향자(n=661) 중 58%가 귀농·귀촌 시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응답하였음.

도시민의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있다’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31).

3.5. 소비자로서 농식품에 대한 인식

- 도시민 10명 중 4명 우리 농식품 안전성 ‘개선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 도시민 45.9%는 ‘개선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20.3%로 조사되었음.
 - 농식품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45.9%)’는 응답은 2016년(52.6%) 대비 6.7%p 감소한 반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9%p 증가하여 농식품

안전성 개선의 부정적 인식이 2016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2017년 가축질병 발생,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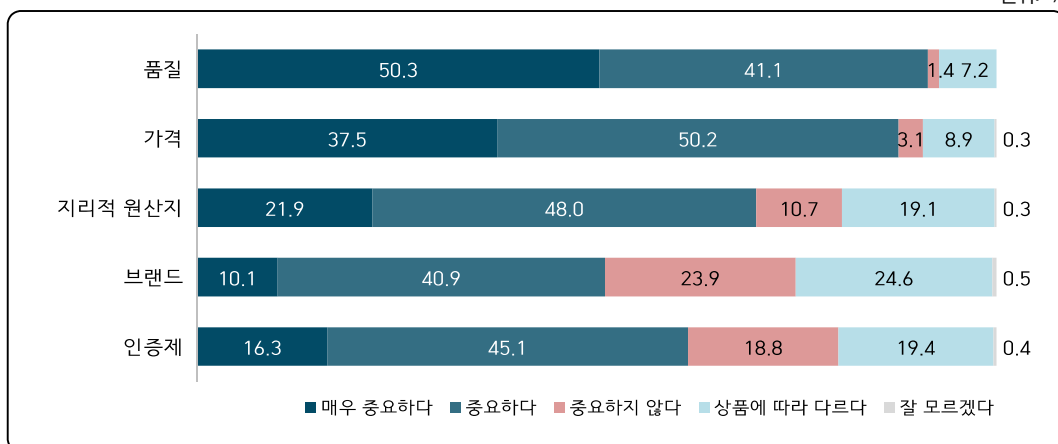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선되고 있음	24.2	60.6	53.6	52.6	45.9
보통	40.5	33.9	33.5	36.0	33.9
개선되고 있지 않음	35.3	5.4	12.9	11.4	20.3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37).

- 도시민, 식품 구매 시 품질을 최우선 고려
 - 식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9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격(87.7%)’, ‘지리적 원산지(6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식품 구매 시 중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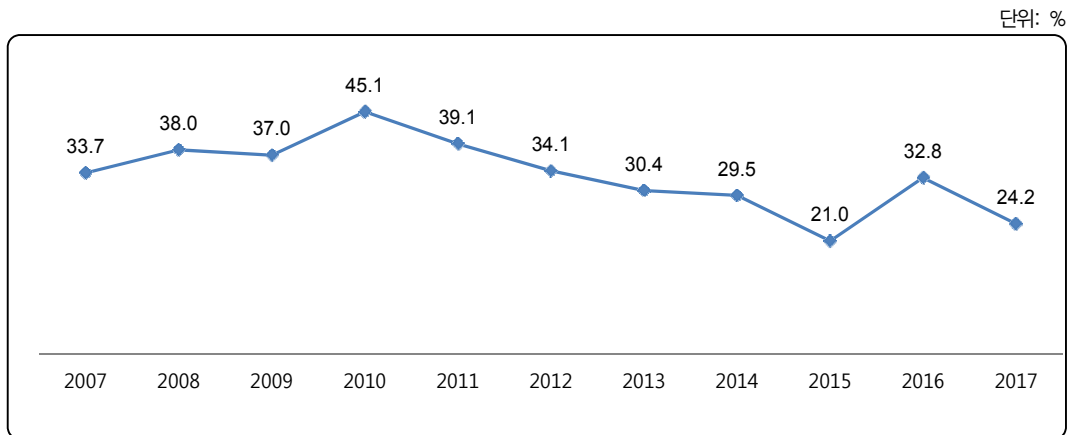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36).

- 우리 농산물 구매 충성도 하락 추세
 -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매에 대해 도시민들은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매’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았고,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34.4%),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 구매’(24.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07년 대비 9.5%p 감소한 반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수입 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라는 응답이 14.5%p 증가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구매 충성도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38).

4.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에 대한 의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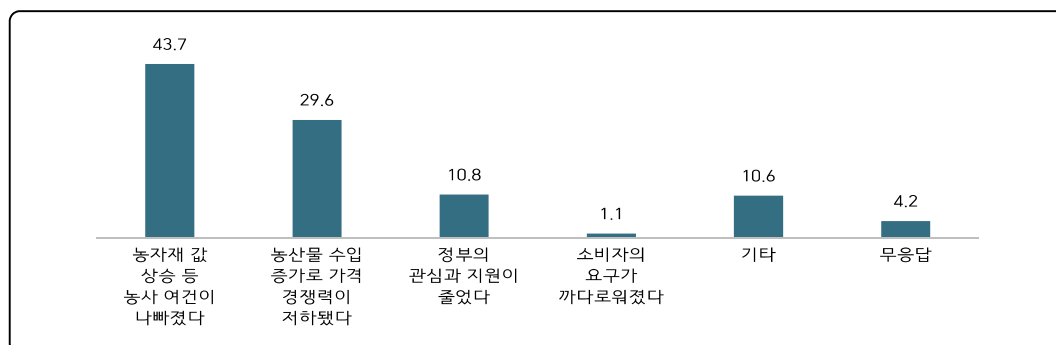
4.1. 농사 및 농업인 직업 만족도

- 농업인의 올해 농사에 대한 만족도 24.9%에 그쳐
 -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24.9%, ‘불만이다’는 39.1%로 조사되었음. 농가소득별로는 전체 농가소득이 3천만 원 이상에서 ‘만족한다’(31.1%)는 응답이 3천만 원 미만(18.7%)보다 1.5배 이상 높게 조사됨.
 - 연도별로는 올해 농사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년(19.8%) 대비 5.1%p 상승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1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농사에 불만족하는 응답자(n=378)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 여건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다’(29.6%),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10.8%)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올해 농사의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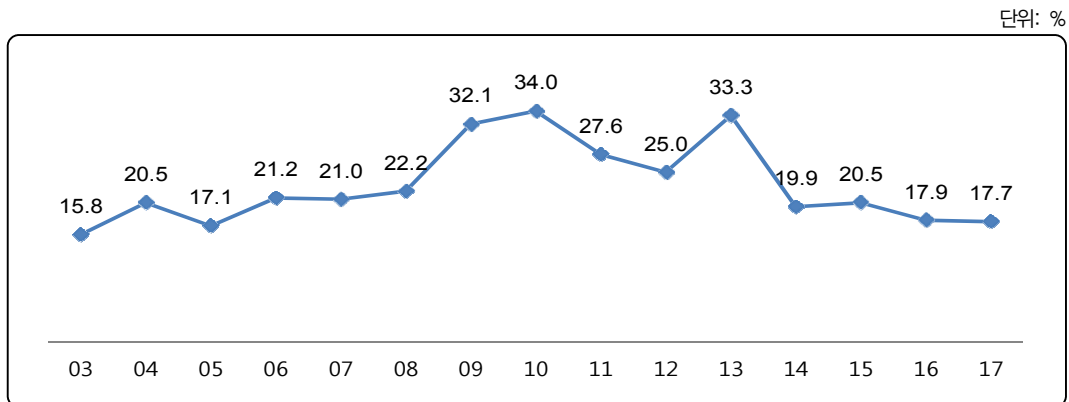
올해 농사 만족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만족	29.1	14.3	25.0	23.3	33.0	33.3	35.2	19.8	24.9
그저 그렇다	27.3	31	33.3	40.2	32.2	31.1	28.5	28.6	34.7
불만	43.2	54.3	40.8	36.4	34.2	35.0	35.2	50.7	39.1
무응답/모름	0.4	0.4	0.9	0.2	0.5	0.7	1.1	0.8	1.3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52~53).

- 농업인 직업만족도 최근 3년째 주춤...‘소득보장 미흡’ 원인
 - 농업에 대한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높음)는 응답이 17.7%로, ‘불만이다’(낮음)는 응답(38.5%)에 비해 20.8%p 낮게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농업이라는 직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최근 3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불만족하는 응답자(n=364)를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농업인 10명 중 6명이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60.4%)고 응답하였음. 특히, ‘소득보장 미흡’에 대한 불만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p, 10년 전보다(2006년, 46.0%) 14.4%p 증가하였음.

농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주: 2014년 조사결과부터는 ‘전반적 만족 정도’의 ‘높음(다소 높음, 매우 높음 합산)’으로 작성함.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 으로 장애가 불안하다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기타	계
60.4	16.8	11.5	9.3	1.6	0.3	100.0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54~55).

4.2. 농업경영 여건변화와 향후 영농 의지

- 농업경영의 최대 위협요소는 ‘일손부족’으로 나타나
 -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 부족’(16.6%)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FTA 등 개방 확대’(14.6%), ‘농업 생산비 증가’(14.0%),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8.7%), ‘판로 확보 어려움(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한 결과, ‘기상 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판로 확보 어려움’ 등은 감소한 반면, ‘FTA 등 개방 확대’, ‘후계인력 부재’ 등은 증가하였음.
 - 특히, 다른 위협요소들에 비해 ‘일손 부족’은 최근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농업경영 위협 요소 인식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FTA 등 개방 확대	17.6	17.6	12.2	14.6
농업 생산비 증가	14.8	14.2	13.8	14.0
영농자금 압박	1.7	1.8	2.0	1.7
농업정책 오류	6.2	5.4	5.2	6.1
일손 부족	13.5	14.1	15.0	16.6
판로 확보 어려움	8.0	9.6	10.1	7.7
농지 부족	0.5	0.3	0.6	0.6
농가부채 증가	6.0	4.1	4.2	4.0
후계인력 부재	5.1	5.3	4.8	6.4
구제역 등 가축 질병	0.8	0.8	0.6	1.2
가뭄/홍수/태풍 피해	1.9	3.0	4.3	3.6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5.6	5.5	4.9	4.7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12.2	10.6	8.4	8.7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3.5	5.8	9.5	6.9
조수 피해	1.6	1.5	2.2	2.2
기타	—	—	2.3	1.0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58).

- 농업인, 앞으로 농업경영 활동 기간 ‘5~10년’ 예상
 - 앞으로 농업경영 활동 계획 기간에 대해 농업인의 10명 중 4명은 ‘5~10년’ (40.7%)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0~20년’(23.3%), ‘3~5년’(15.6%), ‘3년 이하’(10.6%), ‘20년 이상’(7.2%)의 순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 보면, 20년 이상 농업경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60세 미만 (18.2%), 3천만 원 이상(11.5%), 월평균 생활비 200만 원 이상(14.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4.3.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최근 3년 만에 다시 회복
 - 현재 농촌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40.7%로 ‘불만이다’는 응답 (21.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 계층별로는 연평균 농업 소득 2천만 원 이상, 전체 농가 소득 3천만 원 이상, 월평균 생활비 200만 원 이상에서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 연도별로는 농촌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3년(10.7%) 대비 2017년 (40.7%) 약 4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불만’이라는 응답(2003년 52.1%→ 2017년 21.0%)은 2003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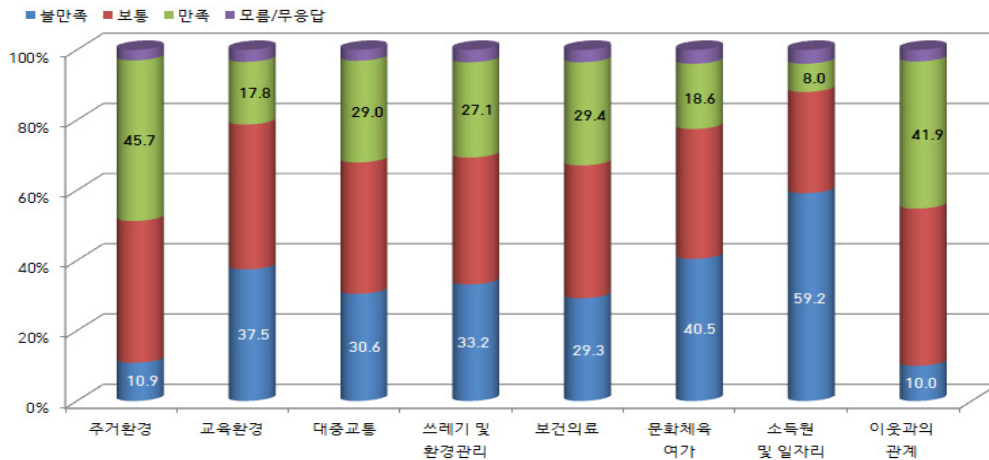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만족	10.7	10.9	9.5	16.5	17.8	22.7	25.6	23.3	25.6	32.5	31.3	43.8	37.4	29.1	40.7
그저 그렇다	37.2	40.2	32.4	40.6	40.0	39.9	38.2	38.4	42.2	34.0	38.2	36.1	39.9	39.5	35.3
불만	52.1	48.8	58.1	41.9	41.7	36.8	34.7	38.2	31.7	33.4	29.2	18.8	21.0	30.8	21.0
모름/무응답	-	-	-	1.1	0.6	0.6	1.6	0.1	0.5	0.2	1.3	1.2	1.7	0.6	3.0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61).

- 농촌생활 중 ‘주거환경’ 만족도 높아
 - 농업인의 농촌 생활 환경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5.7%로 가장 높았고, ‘이웃과의 관계’, ‘보건의료’, ‘대중교통’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소득원 및 일자리’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체육 여가’, ‘교육환경’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남.

농업인의 분야별 농촌생활 만족도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정포커스 제161호(2018: 18).

- 농업인, 84.6% ‘농촌에 계속 살겠다’
 - 향후 농촌 거주 계획 여부에 대해 농업인 84.6%가 ‘농촌에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을 떠날 생각’이라는 응답은 4.9%에 그쳤음.
 - 계층별로 보면, ‘농촌에 계속 살겠다’는 응답은 영농경력 20년 이상인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농촌에 계속 살겠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는 응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농촌 거주 계획 여부

단위: %

구분	2001	2002	2005	2006	2007	2009	2010	2012	2014	2015	2017
농촌에 계속 살겠다	70.0	77.5	77.5	81.3	80.8	82.6	77.2	84.5	85.7	71.9	84.6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	10.4	10.3	9.8	6.9	5.2	4.9	6.4	5.7	5.9	5.2	4.9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생각이다	2.7	1.2	1.3	1.2	1.3	1.6	1.2	0.6	1.0	0.6	0.5
모르겠다	16.9	11.1	11.4	10.6	12.8	11.0	15.2	9.1	7.4	22.4	10.0

자료: 송성환·박혜진,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2017: 59).

5. 시사점

- 2017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농업인의 부정 인식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의 가치, 중요성,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교육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70%는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54%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도시민은 농촌에 대해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지만, ‘문화, 보건 의료,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이 51%로 나타남.
-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부담 및 농촌 복지 예산 증액 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여 농업·농촌의 높은 가치 의식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귀농·귀촌 의향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민의 40%는 전원생활과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귀농·귀촌 의향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으로서의 농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도시민의 경우, 식품 구매에 있어, ‘품질’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의견은 2016년보다 감소하였음.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품질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의 직업 만족 비율은 18%로 낮으며, 노력 대비 낮은 보수가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업경영에 있어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최대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 귀농·귀촌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가축 방역체계 개선 방안*

김현중**, 정세미***, 한봉희****

1.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원인

1.1. AI 발생 현황과 원인

- 2017년 11월 17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HPAI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전남 영암, 나주, 전북 정읍, 경기 포천 등 철새 도래지 및 가금류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연이어 발생함.
- 2017/18년 HPAI 농장 발생 건수는 총 22건이며, 약 654만 마리(예방적 살처분 118농가, 521만 마리 포함)가 살처분 되었음.
 - 22건의 농장 발생 중 오리 농가가 14호로 가장 많았으며, 산란계 발생 농가 7호, 종계 발생농가 1호임. 살처분 마릿수는 닭 581만 마리, 오리 70만 마리, 메추리 3만 마리였음.
- HPAI는 2003년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현재(2018.04.24.)까지 총 8차례 발생하였음. 주로 철새 이동시기인 겨울철에 발생하였고, 발생 혈청형은 H5N1형(1~4차), H5N8형(5~7차), H5N6형(7~8차)임.

* 이 원고는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 “구제역 발생 현황과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정부의 방역 대책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kim1025@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wjdtpl55@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hanbh@krei.re.kr)

- 과거 HPAI 발생을 보면, 5차 발생이 가장 최장 기간을 기록하였으며, 2016/17년에 발생한 7차 HPAI가 가장 많은 발생 건수와 매몰처분 마릿수를 기록함.

HPAI 발생 현황

	1차	2차	3차	4차
시기	(‘03. 12. 10. ~‘04. 3. 20.) (102일)	(‘06. 11. 22. ~‘07. 3. 6.) (104일)	(‘08. 4. 1. ~5. 12.) (42일)	(‘10. 12. 29. ~5. 16.) (139일)
지역 및 건수	10개 시·군 19건 (닭 10, 오리 9)	5개 시·군 7건 (닭 4, 오리 2, 메추리 1)	19개 시·군·구 33건 (닭 21, 오리 6, 닭·오리 복합 6)	25개 시·군 53건 (닭 18, 오리 33, 메추리 1, 꿩 1)
매몰처분	• 392호 • 528만 5천수	• 460호 • 280만수	• 1,500호 • 1,020만 4천수	• 286호 • 647만 3천수
혈청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1형
	5차	6차	7차	8차
시기	(‘14. 1. 16. ~‘15. 11. 15.) (669일)	(‘16. 3. 23. ~4. 5.) (14일)	(‘16. 11. 16. ~‘17. 6. 23.) (220일)	(‘17. 11. 17.~)
지역 및 건수	19개 시·군 38건 (닭 16, 오리 21, 거위 1)	2개 시·군 2건 * 예방적 매몰처분, 역학 관련 등 총 2건 양성	50개 시·군 419건 (닭 215, 오리 159, 메추리 7, 관상조류 1, 기러기 1 등)	16개 시·군 22건 (닭 8, 오리 14)
매몰처분	• 809호 • 1,397만 2천수	• 5호 • 1만 2천수	• 1,129호 • 3,806만 수	• 140호 • 653만 9천수
혈청형	H5N8형	H5N8형	H5N6형	H5N6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7차 HPAI 발생의 역학조사¹⁾에 의하면, AI 국내 발생 원인은 겨울 철새의 번식지인 중국 북쪽지역에서 AI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7차부터 발생한 H5N6형 바이러스는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 광둥성 및 홍콩에서 유행한 H5N6형과 유사함.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12. 13.) “이번 고병원성 A(H5N6) 발생 역학조사 중간 상황” 참고

- 농장 발생 원인은 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AI에 감염된 철새가 서해안 지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오염된 지역의 사람, 차량(기구), 소형 야생 조수류(뒷새 등) 등을 통해 농장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1.2. 구제역 발생 현황과 원인

- 2018년 3월 26일, 경기 김포시의 양돈 농장에서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이 발생함. 이는 2017년 2월 이후 13개월 만임. 4월 1일 김포시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함. 4월 현재 총 2건이 발생하였고, 1차례 구제역 의심신고(4월 11일)가 있었으나 음성으로 밝혀져 4월 1일 이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은 A형으로, 2010년 소에서 A형이 발생한 적은 있었으나 돼지에서 발생한 것은 최초임.
 - 발병 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하여 총 10가구 11,726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됨.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10차례 구제역이 발생함. 구제역 바이러스는 주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및 농장주의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등이 주된 원인이었음. 그러나 2016년의 경우 2014~15년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 2014~15년 발생한 구제역이 2010~11년 당시 구제역보다 발생 기간과 발생 건수가 더 많았으나, 방역 정책 변화(2011년 전국 백신 접종 실시)로 살처분 마릿수 및 재정 소요액(2010~11년: 27,383억 원, 2014~15년 638억 원, 추정)이 크게 감소함.

과거 구제역 발생 현황

구분	2000년	2002년	2010년 1월	2010년 4월	2010~11년
시기	(‘00. 3. 21.~ 4. 15.) (22일)	(‘02. 5. 2.~ 6. 23.) (52일)	(‘10. 1. 2.~ 1. 29.) (28일)	(‘10. 4. 8.~ 5. 6.) (29일)	(‘10. 12. 3.~ ‘11. 4. 21.) (145일)
지역 및 건수	6개 시·군 15건 (소 15)	4개 시·군 16건 (소 1, 돼지 15)	2개 시·군 6건 (소 6)	4개 시·군 11건 (소 7, 돼지 4)	75개 시·군 153건 (소 97, 돼지 55, 염소 1)
매몰처분	• 182호 • 2,216마리	• 162호 • 160,155마리	• 55호 • 5,956마리	• 395호 • 49,874마리	• 6,241호 • 3,479,962마리
혈청형	O형	O형	A형	O형	O형
구분	2014년 7월	2014~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기	(‘14. 7. 23.~ 8. 6.) (15일)	(‘14. 12. 3.~ ‘15. 4. 28.) (147일)	(‘16. 1. 11.~13. 2. 17.~3. 29.) (44일)	(‘17. 2. 5.~13.) (9일)	(‘18. 3. 26.~)
지역 및 건수	3개 시·군 3건 (돼지 3)	33개 시·군 185건 (소 5, 돼지 180)	6개 시·군 21건 (돼지 21)	3개 시·군 9건 (소 9)	1개 시·군 2건 (돼지 2)
매몰처분	• 3호 • 2,009마리	• 196호 • 172,798마리	• 25호 • 33,073마리	• 21호 • 1,392마리	• 10호 • 11,726마리
혈청형	O형	O형	O형	O형	A형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2011 구제역 백서』, 『2014~2016 구제역 백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11. 7., 2017. 3. 22).

2. 가축 방역의 문제점

2.1. AI 방역의 문제점²⁾

가. 사전 예방 미흡

- 농장 차단 방역 미흡
 - AI 발생 농장 역학조사 결과, 국내 가금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AI 발생 원인은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미비와 농가의 방역지침 미준수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사료·왕겨·분뇨수거·계란수집 차량 및 야생 조수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됨. 즉 농장 차단 방역 미흡으로 AI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실시 중인 가금농장의 방역 실태 점검이 서류 확인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가금 농장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독제 효능 문제 및 백신 개발 관련 R&D 미흡
 - AI 소독제는 제품에 따라 기온이 영하 이하로 내려가거나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 효능이 저하 또는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016/17년 AI 발생 시 방역 현장에서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이 사용되기도 했으며, 소독제 효능에 대한 시험 및 연구도 부진한 실정임.
 - 2016/17년에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백신 사용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국내에는 고병원성 AI 백신개발 기술 및 유사시 사용 가능한 백신도 확보되어 있지 못함. 주변국에서 AI가 상시 발생 중에 있어 AI 바이러스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R&D가 필요한 환경임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음.

2) 2016/17년 AI 발생 후 제기된 문제점 위주로 정리한 것임

- 철새 대응 체계 운영 미흡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철새의 분변이나 폐사체, 야생조류 포획을 통해 철새 등 야생조류의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나, 야생조류의 AI 바이러스 조기 검출 및 초기 대응체계 미흡, 동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시료 채취 시기 및 장소 중복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AI 예찰이 이루어지지 못함.
 -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철새 도래 시기, 도래 현황, 철새 종류, AI 검사 사항 등의 AI 관련 정보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 농장 사전 예찰 미흡
 - 정부는 가금 사육농장과 야생 조류에 대해서 AI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찰이 연중 평균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철새 도래 시기 등 AI 발생 위험시기에 집중적인 예찰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육기간이 짧은 오리, 육계의 경우 사육현황 변동이 잦아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방역조치 미흡 사례가 발생함.
 -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등 방역 인력이 예찰을 위한 농장 출입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시료 채취 과정에서 농장주 거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찰 업무에 한계가 있음.
- 가금산물 유통과정 상 방역의 한계
 - 산란계 농장은 매일 계란이 생산·출하됨에 따라 타 축종에 비해 농장 내로 식용란 수집차량, 사료차량 등 외부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음. 특히, 알 수집 상인은 동일 차량으로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장 간 AI 전파 요인이 될 수 있음.
 - 토종닭 경우, 소규모 사육농가가 많고 도계시설이 부족하며, 전통시장에서 산닭으로 거래되는 등 AI 방역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나. 발생 시 대응 미흡

- AI 진단 지연에 따른 확산방지 대책 미흡
 - AI 의심 신고 시 일부 지자체만 H5, H7 1차 검사 확진 기능이 있어 1차 검사 확진 기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의심신고 건에 대한 AI 확진 지연으로 AI 확산이 우려됨.
 - AI 간이진단키트 사용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제한되어 신고 지연이 우려됨.
 - 가축소유자 등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모호하여 AI 발생 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함.
-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AI 위기관리 단계
 - 우리나라는 AI 발생 상황에 따라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음. 4단계로 대응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조가 늦어지는 등 초동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어서 AI 발생 시 전국 단위 심각 단계 인식 없이는 AI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AI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
 - 2003년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AI는 대부분 기존 발생 시·군에서 다시 발생하는 경향이 높음. 지자체는 충분한 방역 훈련을 통해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하지만, 잦은 AI 발생으로 방역 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함.
 -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하는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설치 또는 발생농장 주변 지역에 임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AI 발생 시에만 임시 운영하고 있어 위치 파악이 어려움.

다. 고위험 지역의 방역 관리 미흡

- AI 중점방역관리지구의 AI 예찰 미흡 및 농장 방역기준 미준수
 - 정부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 도래 지역,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축산농가 밀집 사육 지역 300여 곳 이상을 2016년부터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2016/17년 AI 발생 시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의 AI 양성 농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2016년 10월 28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장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봉강천은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임. 2016년 10월 1일부터는 야생철새 상시 예찰 강화 기간인데도 정부가 AI 바이러스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농장은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 담장,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등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함. 그러나 AI 고위험 밀집지역에 위치한 대다수 가금류 농장은 방역시설의 설치가 미흡하고, 방역시설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가금류 밀집사육 지역의 AI 방역의 한계
 - 가금 사육농장 밀집 지역의 경우, 방역 활동을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축사 간 거리가 짧아, 특정 농장에서 AI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은 불가피함.
 - 축산 차량(사료·분뇨·알 수집·가축 수송 등)이 지역 내 여러 농장을 빈번하게 출입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AI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높음.

라. 방역 주체의 책임 의식 부족

- 살처분보상금 과다 지급 및 비현실적인 감액기준으로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 약화가 우려됨.
 - 산란계의 경우 생산비 외에 기대수익까지 포함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어 살처분보상금이 과다 지급될 가능성이 높음.

- 2015년 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금 추가 감액기준 보완 및 감액 경감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실제 추가 감액된 경우는 적음.
- AI 빈발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방역비용 및 생계안정자금, 매몰비용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방역사업의 수혜자는 방역 관련 비용을 거의 부담하고 있지 않음.
- 닭·오리는 계열화 비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방역지도 및 사육에 책임이 있는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은 미미함.
- 방역부담금 등을 활용한 방역비용 충당 등으로 정부가 100% 지원하는 보상체계에서 산업계가 공동 책임지는 보상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마. 중앙 방역 조직의 비효율 및 지방 방역 인력 부족

- 중앙방역조직의 비효율적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는 방역 정책을 축산업 진흥 정책과 함께 수행하고 있음. 평시에는 축산업 진흥, 질병 발생 시에는 방역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이원적인 업무 수행 구조임.³⁾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 검사 및 연구, 사전 예찰, 역학조사, 동물 약품 관리, 검역 등의 지원 기능과 함께 방역 정책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방역 정책 기능은 중앙정부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지방 방역 인력 부족 및 방역 업무 한계
 - 시·군의 축산부서에서 AI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살처분 및 매몰, 초소 운영 등), 농가 지도 및 점검 등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역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사전 준비도 어렵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방역, 위생, 검역, 축산농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임. 평시에 가축 질병 예찰 및 시료 채취 업무보다는 주로 도축검사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질병 전화예찰 및 시료채취 업무의 실효성이 부족함.

3) 2017년 10월, 가축 방역 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정책국 내의 방역 관련 부서를 분리하여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 소속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 연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2.2. 구제역 방역의 문제점

- 최초 구제역 유입 차단 미흡
 - 현재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존에 발생했던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국내 여행객이나 외국인에 의한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출입국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가의 차단 방역 한계와 농가 방역 실태 정기 점검 체계 강화
 - 축사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방역 시설의 미비와 운영 미흡으로 농가 단위 차단방역에 한계가 존재함.
 - 축산농가에서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방역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방역 관련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돼지에서 최초 발생한 A형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 부족
 - 그동안 국내에 돼지에서 A형 바이러스가 발생한 적이 없어 O형 위주의 백신을 접종해왔음. 2018년 구제역 발생 전 A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접종한 돼지는 전체 1,100만 마리 중 30만 마리에 불과해 접종률이 3%에 불과하였음.
 - 우리나라에 보급중인 백신 중 A형 바이러스까지 예방 가능한 2가 백신(O·A형)은 보유분이 881만 마리에 불과해 추가 물량을 수입해 접종을 실시함.
 - 이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4월 20일 국내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4월 21일 접종을 완료함.

3. 가축 방역체계 개선 방안

3.1.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가. 사전 예방 체계 강화

- 농장차단방역기준 마련 및 준수
 - 정부는 AI 발생 위험 요인 평가에 근거하여 축산농가가 사육 과정에서 지켜야 할 방역 시설 기준 및 행동 요령을 포괄하는 ‘농장차단방역기준(가칭)’을 마련해야 함. 법령에 규정된 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역학조사 결과, 일본 사례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장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고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함.
 - 전국 가금농장 소독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미비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책 사업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금 농장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영상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방역 및 위생·안전 실태를 점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금농장 출입구와 축사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책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함.
- 소독제 관리 및 R&D 강화
 - 소독제의 효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장과 방역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독제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소독제 효능 검증체계를 보완하여 소독제 효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주변국이 AI 상시 발생국이므로 ICT 등을 이용한 AI 예찰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변종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AI 백신 개발 및 백신 생산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일본은 ‘사양위생관리기준’에 의해 소독방법, 방역시설 및 장비, 출입 기록 등 농장 단위 차단 방역에 대한 기준이 축종별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

- 야생조류 대응 체계 정비
 - 야생조류 예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중점분야를 구분하여 전문화하고 철새 및 AI 검사 등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야 함. 장기적으로 상호협력 부분을 제외한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업무를 환경부가 전담하는 방안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철새 관련 AI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 등을 통해 AI 바이러스 발견 시 인근 가금농가에 홍보 및 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함.
 - 대학 등 연구기관의 야생조류 예찰 과정에서 AI 항원이 검출될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환경부 등 방역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여 신속한 AI 초동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농장 사전 예찰 및 도축 단계 검사 강화
 -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예찰인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지도 및 예찰을 실시하고, 사육 가금의 산란율 및 폐사율 등의 변화에 따른 행동 요령을 설정하여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야 함.
 - 사육주기가 짧은 가금의 방역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가금농장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사육정보를 현행화 할 필요가 있음.
 -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도계(압)장에서 환경시료 및 출하 가금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AI 항원 검출 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즉각 실시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 가금산물 유통체계 개선
 - 산란계농장의 사육시설과 출하시설을 분리하여 계란 출하 과정에서 외부환경과 사육시설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장 구조 개선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계란 수집 시 농장이 아닌 식용란선별포장업체(Grading and Packing Center)를 통해 거래되도록 계란 유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이나 가든형식당 등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가축거래상, 도축장, 전통시장 등을 등록 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발생시 대응 강화

- AI 검사기관 확대 및 질병 신고 기준 강화
 - AI 1차 검사 확진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1차 확진 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확진 기관을 추가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AI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간이진단키트 사용을 검역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일반 수의사로 확대하고, 진단키트 사용내역을 농장에서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해야 함.
 - 가금 사육농장의 폐사율 등 질병 신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 AI 대응 체계 정비
 - AI 발생 상황별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축소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해야 함. 정부는 겨울철 농장 AI 발생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하여 발생 초기부터 민관군,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대책을 발표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자체 지원을 위해 기동방역기구 및 기동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AI 발생에 대비하여 AI 대책본부를 사전에 편성하는 등 세부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장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 실시
 -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가금 밀집 사육 지역 또는 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AI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살처분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여 농가에 통보할 필요가 있음.

- 살처분은 24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 살처분 인력, 시도 및 방역본부 방역 기동대, 군 재난구조부대 등이 총동원되어야 함.
- 위험도에 따라 방역대(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 내 가금, 알 및 부화장에 대한 방역조치(이동제한, 폐기 등)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축산차량에 의한 AI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세척 기능을 포함한 상시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밀집사육지역 재편
 - 고병원성 AI는 인근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아 가금 밀집사육지역 등에서 발생할 경우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가금 밀집사육지역 등 방역 추진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가금사육농장은 최소한의 이격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전 추진이 필요함. 이전 시 소요되는 비용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 사업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 기준 및 신규 허가 기준 강화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함. 우선 일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차단 방역 효과가 높은 방역시설 기준과 실행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 기준 강화 이후, 기준을 충족하고 신규 축사 부지 주변에 가금농장 유무를 확인한 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축 재입식 기준 강화를 통한 방역 소홀 농장 관리 강화
 -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기본적으로 AI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AI 발생 농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 사육농장에서 AI 발생 시 방역시설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보완 이후 재입식을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가금 사육 휴지기제 도입
 - AI 상승 발생 지역과 AI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가금 사육을 일시 제한하는 ‘가금 사육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6년 안성시에서 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휴지기제가 시행된 바 있으며,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2017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재정을 투입하여 한시적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하였음.

라. 방역 주체의 책임 강화

-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한 방역 의식 고취
 - 가금 사육 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를 위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미신고자 등 중대위반 시 감액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반면 최초 신고 농장이나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금의 용도별로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농가의 피해는 적절하게 보전하고 과잉지급은 방지하여야 함.
- 방역비용 분담을 위한 방역부담금 도입 검토
 -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방역 관련 비용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을 높여 AI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방역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
 - 계열농가에 입식된 가금류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계열화사업자이므로 AI 발생 시 계열화사업자가 살처분 인력을 지원하거나 방역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가금 전문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추진 중임.

마. 방역 조직 및 업무 체계 개선

- 중앙 방역 조직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내 가축방역, 검역, 동물복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앙 정부의 방역 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였지만, 관련 기관 간 방역 정책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역기능 및 역할 확대
 - 신속하고 상시적인 방역을 위해 긴급방역조치, 역학조사, 사전조사 등과 같이 현장성 높은 방역 기능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AI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체계적 업무 추진을 위해 시·도별 1개소 이상 방역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직 재편
 - 현재 민간조직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원의 시·도 공무원화 조치를 통해 시·도 및 시·군이 연계한 현장 방역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의 지원 조직으로 흡수하고 인원 및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 방역 조직 강화
 - 시·도, 시·군,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는 방역 집행 업무를 지자체(시·군)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는 시·군에 설치된 방역 전담부서가 전염병 예방에서부터 발생 시 대응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신속한 검진을 위해 AI 정밀검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농촌지역 시·군 소속기관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현장 농가 지도 및 점검, 사전 대비, 살처분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3.2. 구제역 방역 체계 개선 방안

- 농장의 방역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 강화
 - 농장차단방역 기준은 축종별(소, 돼지, 염소 등) 소독 방법, 방역시설 및 장비, 사람·차량 출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폐사율 등의 내용을 농가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함.
 - 또한 농가에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게 하고 정부 및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점검 결과는 질병 발생시 보상금 삭감 등의 근거로 활용함.
 - 원활한 점검을 위해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방역 현장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농장 차단 방역을 위해 방역 시설 설치 지원
 - 구제역도 최초 발생 이후 축산 차량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므로 농가 수준에서 철저한 차량 소독이 필요함.
 - 2014~15년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 경로는 차량인 것으로 추정됨.
 - 신규 축산농가는 방역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이전하거나 미비된 농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독려해야 함.
 - 모든 축산관련 차량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정보의 현행화를 통해 확산방지를 위한 차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살처분 보상금 및 방역 비용의 분담을 위해 방역부담금 도입 검토
 -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활동을 위해 자조금 또는 축발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한 국형 가축방역기금 조성 및 운영 검토가 필요함.
 - 방역비용과 살처분 비용을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등 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함 .
- 구제역 백신의 국내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R&D 확대
 - A형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비축이 881만 마리분에 불과해 구제

역이 확산되었더라면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구제역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추가 지원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구제역 백신 개발 이후에도 상용화 및 대량 생산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함.
-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백신 생산체계가 확립될 경우 주변국에 대한 수출도 가능함.
- 또한 백신 개발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항원뱅크를 운영하는 등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함.

(E) 01-2018-01

농업농촌경제동향 2018 봄호 | 제21권 제1호 (통권79호)

등 록

인 쇄 2018. 5

발 행 2018. 5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056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KREI 농업관측본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061-820-2283 Fax. 061-820-2409

<http://www.krei.re.kr>

